붙임 1 **4단계 BK21사업 자체평가보고서[양식]_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						
사업 분야	사회과학	신청분야	사회/인류학	지역	지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인류학	도시및산업인류학	인류학	기타인류학	역사학	고고학
	비중(%)	40%		30%		30%	
교육연구단(팀)명	국문) 인류세 시대, 생물문화다양성 연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 교육연구단						
	영문) Expert-BCD (A Graduate Program for Resolving Local Crises and Shaping Futures by Studying Biocultural Diversity in the Anthropocene)						
교육연구단(팀)장	소 속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임[redacted]택		전화	[redacted]		
				팩스	[redacted]		
	성명 영문	Yim Kyungtaek		이동전화	[redacted]		
				E-mail	yimkt02@jbnu.ac.kr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9~'21.2)	2차년도 ('21.3~'22.2)	3차년도 ('22.3~'23.2)	4차년도 ('23.3~'24.2)	5차년도 ('24.3~'25.2)	6차년도 ('25.3~'26.2)
	국고지원금	220,535,000	441,070,000	441,549,000	563,633,000	395,558,000	395,778,393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4.9.1.-2025.8.31.(12개월)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임[redacted]택 (인)
확인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손[redacted]민 (인)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인류세	지방 / 지역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생태	역사생태경관	지역위기
	문화자원	지속가능성	미래 구축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은 인류세 시대에 생물문화다양성 탐구를 통해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 이를 위해 지방을 인류세 위기 극복의 토대이자 생물문화다양성을 지닌 주체적 장소로 주목함. 이에 지방적 지식 축적을 통해 지역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지역문화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단은 문화생태의 변화 양상,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지역위기 재구성과 문제 인식,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전략 등을 핵심 연구영역으로 삼음. 참여교수와 대학원생은 협력하여 KCI등재논문, 학술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해외공동연구 및 공동저서 발간 등 다각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 특히 국제화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 및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이 결합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원을 확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지역문화 연구자 및 실천가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함		
교육역량 영역 성과	• 학문 간 연계를 통한 창의적 도전 교육, 실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교육,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현장밀착형 교육,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을 구현함 • 인류세·생물문화다양성 관련 교과목을 신설 및 개편하고, 현장중심 실천적 연구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제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고학-문화인류학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 학사운영의 기본 원칙을 역동성·통합성·책임성·실용성에 두고,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취·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		
연구역량 영역 성과	•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13회 발표하였으며, 해외공동연구 저서를 출간 • 지역적 현안을 세계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SEAA(동아시아고고학회)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 역량을 증진함		
달성 성과 요약	• 참여교수: KCI급 논문 게재 6편, 국내·외 학술저서 9편, 국내학술대회 6건, 국제학술대회 3건, 학술연구용역 17건 등 • 신진연구인력: 국내학술대회 5건, 학술연구용역 3건 등 • 산학협력전담인력: KCI 논문게재 1편, 해외공동저서 1편, 국내학술대회 1건, 국제학술대회 1건 • 참여대학원생: KCI급 논문게재 4편, 해외공동저서 1편, 국내저서 1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29회, 학술 연구용역 7건, 수상 3건 등 • 교육연구단 공식 학술행사 : 국제학술대회 2회 공동개최, 연구계획 발표회 4회, 콜로키움 4회 개최, 해외교육연수프로그램 2회,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8회 운영함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해외연구와 관련된 국제화역량 강화 측면에서 SCI급 해외논문게재가 부족함 • 이론과 현장이 결합되고 학제간 융합과 관련된 학술대회의 발표와 연구 조사 결과가 국내외 학회지의 논문게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함 • 지역위기를 극복과 실천에 대한 연구가 지역사회 환류되는 메커니즘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차년도 추진계획	• 2026년 1월 개최 예정인 글로컬 '하기(Doing Glocal)'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지역문제의 글로컬한 실천과 대응 방안을 모색 • 아시아학회의 AAS- in- Asia (2026.09.25-27, 라호르대, 파키스탄) 세션 조직을 통해 글로벌 연구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학문 네트워크 속에서 연구성과 확산을 도모. • 해외 유수 대학과의 MOU 확대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추진		

I 교육연구단(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임[redacted]택	영 문	Yim [redacted]taek
소 속 기 관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가.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역량

□ 대학원생의 논문 및 진로 지도의 우수

- 2018년 고고문화인류학과로 부임 후 석사 8명, 박사 1명 등 대학원생 배출. 현재 논문 지도 대학원생 수가 26명으로 논리적으로 일관된 논문을 작성하도록 자세히 지도
- 학생들의 논문 주제는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으로 선정하도록 지도함. 이는 학생들의 연구 관심사와 희망 진로를 밀접하게 연계시켜 졸업 후 관련 분야로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인류학 다락방'이라는 조직적인 모임을 통해 지도 학생들의 논문 지도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학생 개개인에게 매주 정기적인 논문 지도를 제공하며,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나아가, 학생들이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국제학술대회 참가와 해외 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이론적 깊이와 현장 연구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함

□ 글로컬 현장연구 기반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글로컬(Glocal) 개념을 구체화하는 교육 및 연구 주도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K-POP학과 주임교수로서 글로컬 인재 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음. 교과목 수업에서는 지역 문화를 세계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글로컬 전북의 삶과 문화' 강의를 개설하여 지도함
- 해외 연수 및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구 강화
  학생들의 연구 논문 관련 현장 연구를 적극 독려하며, '사제동행캠프'를 운영하여 현장 확인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나가사키 해외 교육연수 책임 교수로서 학생들과 현장에서 지역 문화 분석 능력을 길러주고 있음. 이는 세계적 차원과 지역 특성을 모두 고려한 실천적 글로컬 현장연구 중심의 연구 수행함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현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 문화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나. 교육연구단장의 연구역량

□ 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와 글로컬 문화연구를 확장한 지역연구 전문가

- 동아시아 지식인 네트워크 주도 및 국제 교류 구축
  20년간 '동아시아출판인회의'를 주도하며 동아시아 연구자 및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과 민간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함
- 동아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심층 비교론적 분석

한국과 일본 사회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문화 이해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 역서『조선의 보고, 전라북도발전사』를 통해 역사생태경관을 포함한 지역 문화적 특성을 분석했으며, 『근대일본의 국민적 심성의 형성』연구를 통해 일본 근대 국민성을 탐구. “일본의 ‘화혼양재’의 국가적 실천양상” 등 타문화 심층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및 글로컬(Glocal)한 시각 형성을 추구함

-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인류세 시대의 지역문화 연구 확장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현대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사상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2025년 나가사키 지역에서 BK21 교육연구단의 해외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그리고 해외연수 성과물로써 저서『문화로 읽는 나가사키 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을 발간함. 이는 연구단 핵심 주제인 인류세, 생물문화다양성, 지역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과 현장 융합 연구의 구체적인 결실이며 국제적 연구를 확장시킨 결과를 도출함

- 저술 및 번역 활동을 통한 학술적・대중적 기여

저역서 50여 권(공저 포함)과 논문 40여 편을 집필하였으며, 일본 학술서적 26권을 번역하여 주요일간지에 기사화됨. 이를 통해 일본 문화와 사상을 학계와 일반 대중에 전달하며 학술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킴. 저서 『슈리성으로 가는 언덕길』, 『앙코르와트』, 역서 『아시아의 무형유산』 등을 통해 해외 문화유산 보존 및 지속가능성 연구를 수행함

- 생물문화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제시

일본 현지 인터뷰, 화지 생산과정 연구 등을 통해 생물문화다양성의 보존에 기여함. 또한, 일본의 접경도시인 나가사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를 세계적 흐름 안에서 다각도로 탐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함

□ BK21 교육연구단 핵심 아젠다를 실천적으로 선도하는 연구책임자

- 선도적인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주도

일본의 9개 지방 국립대학 책임자들과 상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문적 연계를 주도하고 있음. 특히, 2005년부터 시작된 가고시마 대학과의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에서 한국-일본 문화 교류를 주관하여 지역 문화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켰음

- 무형유산 기반의 지속가능성 및 인류세 대응 연구 심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생물문화다양성, 전통지식,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학제 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아시아태평양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참여 및 유네스코 등재 일본 화지 생산과정 연구 등을 통해 ’지방화된 인류세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함

- 지역 연구의 학문적 공헌 및 대중적 확산 주도

『전북학연구』의 편집위원장으로서 지역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 연구에 중추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또한,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정체성 현안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Think global, Act local’의 핵심가치와 함께 글로컬(Glocal) 접근을 실현하여 전북학이라는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음

- 대학원 교육 혁신 및 산업기여 방안 제시

도쿄대학 대학원 등 해외 대학 벤치마킹을 수행하여 학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대학원 운영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음. 아울러, 디자인 박물관연구를 통해 창의적 가치 확산 및 지역문화 기반 산업 기여 방안을 제시함

다. 교육연구단장의 행정역량

□ 참여와 공유 기반의 행정 운영 체계 구축

- BK21 교육연구단장으로서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참여와 공유 기반의 행정 운영 체계를 구축. 연구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 향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방적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연구단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함

□ 지속가능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직 운영

- 2004년부터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조직위원장으로 매년 2회의 국제회의 조직 운영
- 2016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도서선정 위원회 참여
- 2019~2020년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한국일본사상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 유구ㆍ오키나와학회 회장으로서 학술과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원 협동과정 '무형유산정보대학원'의 전공주임으로 재직하면서 교육연구단의 아젠다 중 하나인 유무형문화유산의 연구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
- 2020-2021 문화다양성연구소 소장
- 2020-2024년 4월까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장으로 재직 중. 학술성과를 공표하는 출판문화원의 경영, 관리
- 2021년부터 한국출판인회의 주관 '아시아출판문화상' 조정 및 선고 자문위원 활동 중
- 2024년 한국가족학회 회장
- 2025년 현재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 K-엔터테인먼트학과 주임교수

□ 국내외 학술대회 조직 및 학술교류 활성화 성과

- 2019년부터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으로서 2년간 총 4회의 학술대회 조직
-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매년 2회의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운영
- 한국가족학회 회장으로서 2024년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운영
- 2026년 1월에 개최되는 "글로컬 '하기' : 지방 문화유산과 지방적 지식"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조직.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연구 네트워크 확장, 학문적 담론의 국제적 공유
- 지역의 4개 거점대학들과 함께 "인류세 시대, 지역공동체와 지역재생"이라는 주제로 2026년 1월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조직. 각국의 지역 연구 사례를 공유하여 비교문화적 시각 확대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고고문화인류학과	2024년 2학기	8	8	100%	
	2025년 1학기	9	9	100%	

연번	성명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대표연구업적물 분야	전임/ 겸무 (겸임)	신임 교수	외국인	사업 참여
	한글	영문								
1	임[redacted]택	Yim KyungTaek	교수	10049162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전임	X	X	O
2	김[redacted]옥	Kim SeungOg	교수	10049311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전임	X	X	O
3	이[redacted]우	Lee HyeongWoo	교수	10171544	서양고고학	기타고고학 기타고고학	전임	X	X	O
4	조[redacted]연	Cho DaeYoun	교수	10165144	동양고고학	동양고고학 기타고고학	전임	X	X	O
5	김[redacted]중	Kim NakJung	교수	10045273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전임	X	X	O
6	전[redacted]령	Jun EuyRyung	부교수	11559997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전임	X	X	O
7	진[redacted]숙	Jin Myongsuk	부교수	10130933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전임	X	X	O
8	이[redacted]묵	Lee Kyungmook	조교수	10670379	환경및경제 인류학	환경및경제 인류학 환경및경제 인류학	전임	X	X	O
9	박[redacted]진	Park Sejin	조교수	11529407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생태인류학	전임	X	X	O
참여교수 수									9	
전임 교수 중 참여율									100%	
전체 참여교수 중 전임 교수 비율									100%	

<표 1-2> 교육연구단(팀)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고고문화 인류학과	2024년 2학기	28	10	35%	16	8	50%	0	0	0	44	18	40%
	2025년 1학기	29	12	41%	16	7	43%	0	0	0	45	19	42%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9:37 (1: 4.11)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 교육연구단(Expert-BCD)의 4가지 주요 지향점

- **지역문제 해결형 실천연구자 양성**
  - 인류세의 지구적 전환기에 대응
  - 지역의 문화·생태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색
  - 실천적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가 배출
- **생물문화다양성 기반의 통합적 연구자 양성**
  - 역사생태경관에 대한 종합적 이해 강화
  - 이론적 탐구와 현장조사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분석 역량 제고
  - 생태·문화 융합적 시각의 연구인재 육성
- **글로컬 연구역량을 지닌 국제적 학문인재 육성**
  - 기존 연구틀을 넘어선 새로운 문제의식 형성
  - 국내외 연구자와의 협력·비교연구 확대
  - 세계 학문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연구자 양성
- **'FOREST' 핵심역량을 갖춘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 Frontline(선도성): 지역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 Openness(개방성): 학제 간 융합과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
  - Responsibility(책임성): 지역사회와 지구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
  - Eligibility(적합성):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성
  - Steadiness(지속성): 꾸준한 학문적 성취와 현장 참여
  - Thoughtfulness(사유성):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연구태도

□ 미래 목표 달성 방안과 추진 방향

구분	주요 추진 방향	세부 실행 내용
학제 간 융합연구 강화	- 인류세 지방화와 생물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이론적 분석 및 연구역량 강화	· 인류학·생태학·지리학·고고학 등 학제 간 공동연구 추진 · 융합세미나·워크숍 정례화 · 지역사례 중심의 이론-현장 통합연구 수행
현장기반 연구 및 지역 협력 확대	- 이론과 현장을 결합한 실천능력 강화	· 지자체, 박물관, 문화기관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 활용 현장조사·실습 확대 · 정책연계형 연구 및 사회환원형 프로젝트 추진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 확대 · 공동연구·비교연구 추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글로컬 시각의 학문적 성과 창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차세대 연구자 대상 전문 교육체계 확립	· 연구윤리·데이터분석·논문작성 교육 강화 · 생태·문화 현장연구 방법론 및 디지털인문학 워크숍 운영 · 학술지 및 포럼을 통한 연구성과 공유 활성화

‘FOREST’ 인재양성 체계의 구체화	- 6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 선도성·개방성·책임성·적합성·지속성·사유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멘토링 및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 실천형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학문생태 구축	· 산학연 협력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연구성과의 지역사회 환류 및 확산체계 정립 · 차세대 연구자와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지원

가. 교육연구단의 영역별 계획대비 성과

1) 교육역량 영역

□ 산관학 연계활동의 다변화
-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 이론 이해를 심화하는 연구역량 교육과 사례 중심 학습 확대
- 문화예술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지역문화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 활성화에 관한 협약 체결. 이를 통해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실무와 함께 문화기획, 르로그램 개발, 지역문화에 관한 이론적 안목 배양
- 실무 중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실무역량 강화 및 혁신적 사고 촉진

□ 교육연구단의 핵심의제를 반영한 교과목 도입
- 핵심 연구주제 기반 전공과목 개설
  - 인류세, 생문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 에스노그라피세미나1(박[redacted]진 참여교수), 인류학사세미나(전[redacted]령 참여교수), 전지구화와동아시아(임[redacted]택 참여교수), 전지구화지역위기특강(전[redacted]령 참여교수),
  - 역사생태문화경관 관련 교육 : 고고학연구법특강(조[redacted]연 참여교수), 중구고고학특강(김[redacted]중 참여교수), 구석기학사(이[redacted]우 참여교수), 선사기술론(조[redacted]연 참여교수), 역사고고학특강(김[redacted]중 참여교수),
  - 지방, 지역,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 : 지방의역사와포스트-개발시대의개발(이[redacted]묵 참여교수), 공동체문화특강(박[redacted]진 참여교수), 지속가능성을위한지방의문화경제와예술(이[redacted]묵 참여교수)
  - 인류세, 생물문화다양성, 역사생태경관에 관한 연구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문적 이론과 현장 실천이 연계된 교육 모델을 구축, 이를 통해 교육·학습의 성과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
- 이론·현장·국제적 시각을 결합한 학습 경험 제공, 연구 기반 프로젝트형 과목 확대

□ 학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사관리 및 지도
- 입학 초기 단계: 연구기초 및 학문 탐색 프로그램 제공, 학습 로드맵 안내
- 중간 학업 단계: 연구 프로젝트 참여, 맞춤형 멘토링, 실습·현장 경험 강화
- 졸업 및 연구심화 단계: 국제학술교류, 논문작성 지도,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연구단은 선구성, 개방성, 책임성, 적합성, 안정성, 사유성을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설정. 이를 통해 창의적 탐구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겸비한 지역문화전문가상을 확립, 자기주도적 연구와 공동연구의 균형을 실천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상으로 자리매김

2) 연구역량 영역

□ 인류세 전환기 지역생태 기반의 지속가능성 연구 강화
- 문화·문명 연구에서 출발하여 인류세의 지역적 전개와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확대하고, 지방 중심의 위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생물문화다양성을 핵심 연구로 발전
- 인류세 전환기에 나타나는 환경 변화와 문화 실천의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 수행
- 지역의 생물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활용 모델과 현장 중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구성과가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국제공동연구 및 비교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 연구 방법론과 연구 역량을 강화
- 국제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직접 조직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 결과와 아이디어의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학문 네트워크를 확대
- 연구단의 공동연구 성과를 영문 학술논문으로 발표하고 해외 학술지에 소개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국제 학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

□ 국내 학술연구의 성과 확산
- KCI급 논문 게재: 참여대학원생 4편, 참여교수 5편, 산학협력전담인력 1편
- 국내·외 학술저서: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 해외 공동 저서 1편, 참여대학원생 저서 1편, 참여교수 8편
- 국내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17회, 참여교수 3회, 신진연구인력 5회 발표
- 국제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12회, 참여교수 1회

3) 국제화역량 영역

□ 국제협력프로그램 개최 및 해외공동연구 파트너쉽 구축
-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공동연구를 주도적으로 기획
-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해외학자와의 연구교류,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
- 해외연구는 전 지구적 차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지역문화를 분석하는 능력, 한국의 상황과 비교연구 ·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제화 역량을 강화

□ 국제연구교류 성과물
-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제학술대회에서 총 12건의 발표 성과를 거둠. 이 중 단독발표 10건, 공동발표가 2건으로 연구의 국제적 확산과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됨
- 해외논문게재

  대학원생과 참여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해외 학술지에 영문 논문으로 게재함으로써 글로벌 학문 커뮤니티에 확산에 기여함. 이러한 학술활동은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화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연구단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 해외공동연구 저서 출간
  해외공동연구의 실질적 성과로 저서 『문화로 보는 나가사키_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을 발간함, 이는 국제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 됨. 특히 대학원생과 참여교수, 그리고 해외 연구자가 함께 지역문제를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닌 글로벌 담론 속의 지역성으로 재조명하는 성과를 창출함

나. 저명대학 벤치마킹 대상과의 비교 분석

□ 벤치마킹 범위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도약을 위해 교육·연구체계, 교육과정,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국제와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선정
- 벤치마킹 대학은 교육연구단의 핵심 영역인 인류세 및 생물문화다양성 연구, 그리고 지역중심대학이라는 요소에 주목
- 선정된 대학은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
- 대학별로 반영내용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8개 선정 세계 저명 대학(2025년 기준)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과학·기술·혁신 대학원	
교육·연구체계	•2개 전공(바이오경제·혁신·거버넌스, 과학·기술·사회) 설치 - 석사과정은 기본공동과목과 4개 핵심과정을 이수 - 박사과정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한 주제별 연구그룹 중심으로 운영 •두 전공이 병존하는 석사과정과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박사과정의 설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지리학과 인류세 과정 및 홀로세 과정	
교육과정	•인간 행위와 환경 간 관계의 역동성, 즉 생태적·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환경변화를 이해 •인류세에 대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 동시 접근(예: 기후 위기의 인식론적 측면)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문화다양성학과	
교육과정	•문화인류학, 예술학, 박물관학 융복합 교육 •문화다양성에 관해 철저한 현장연구(fieldwork)를 통한 실증적 연구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인류학과	
교육과정	•인류세에 대한 역사적이고 지역적은 측면에 대한 교육 •생물문화다양성의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측면에 관한 교육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Academic Advising 멘토링 프로그램 •연구성장단계별 Fellowship 등 재정 지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Graduate Writing Center에서 대학원생 논문작성 지원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대학	
국제화 역량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및 세계 석학 초빙 프로그램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강화 방안

2) 벤치마킹에 기반 한 자체 혁신 성과

□ 교육・연구체계

- 석・박사 과정 간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석사과정에서는 필수적인 연구방법론과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규모 스터디 지원 사업> : 소규모 스터디는 대학원생 3~4명이 자발적으로 팀을 결성하여, 학기별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공동 학습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임. 교육연구단은 식사비, 자료 인쇄비, 문구류 등 스터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
- 박사과정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무 워크숍,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대 연구 트렌드를 학습하고 실무 적용 역량 강화
- 학생 의견을 교육에 반영하는 체계는 교육과정과 연구 여건의 수준을 향상시킴. 학생 피드백을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이나 연구 지원 제도를 개선
- 연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대학본부 및 대학원 후원)
  - <드림 장학금 사업> :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가운데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의 등록금을 보조함
  - <리서치 드림 포상 사업> : 참여 대학원생 가운데 학술적 업적(논문, 저작물, 학회 발표 등)이 우수한 학생, 학문후속세대(수료생 및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인력에게 시상함.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김다희가 수상 경력을 보유함
- JBNU-G Start-up 프로그램 참여. 대학원생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을 집중 육성. 4주간 진행되는 4회의 창업 특강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2박 3일간의 아이디어톤 및 스피치 대회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표하는 실전 기회를 제공. 우수팀에게는 포상이 주어지며, 이는 잠재력 있는 대학원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 혁신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인공지능 AI” 특강 이수를 통해 연구 역량 혁신을 목표함. 최근 최신 AI 기술 동향과 이를 연구 과정(문헌 조사, 데이터 분석 등)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활용법을 배움. 또한, AI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연구 윤리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AI 시대를 선도할 통찰력과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됨
- JBNU 프런티어 교육・연구 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교육 환경을 재정비함

□ 교육과정

- 인류세는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끼치는 효과를 부각하는 개념으로 환경적 변화, 사회 체계, 경제적 변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연관됨.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복합적인 시각을 습득하고 학제간 접근법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개발하고자 함
- 생물다양성과 인간 문화의 연계성인 생물문화다양성은 지역 연구의 기본 개념으로 해당 지역의 독특한 생물학적・문화적 속성을 연구하는 것을 지향함
- 지역의 자원과 생태계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의미와 생태학적 가치를 이해, 현장 중심 연구로 학생들이 이론을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제공

• 비교연구 방법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력 증진, 지역이나 문화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연구 시야를 넓힘
• 교과 지원 프로그램 내용
- <건지 교과목 중점지원사업> : CORE 교과목 개발 및 국가 핵심영역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 교과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강의 중 사업 취지에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경비 제공, TA 1명을 배정함
• 교육과정 고도화 프로그램 참여

□ 연구역량 강화와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와 성과
• 연구의 수준과 규모를 함께 발전시키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됨. 연구 계획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도받기 위해 학생과 지도교수 간 긴밀한 소통 필수
• 다양한 연구프로젝트 참가와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적인 연구역량 개발과 연구참여 기회 증대
• 연구기관과 기업, 산업계의 협업 기회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
• 워크숍, 세미나, 연구방법론 강의를 통해 학습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 연구자들에게 논문 출판과 저술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연구자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문가와의 협력 기회를 마련
• <JBNU 논문기초 역량강화교육> : 논문작성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하고 자문하는 프로그램. 1:다수 형태로 실시하였음
• 본인의 연구분야와 적합한 학술지를 찾고 피드백을 받아 게재 가능성을 증대
• 논문 출판 후 연구자들의 업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다양한 학술 교류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JBNU BK21 FOUR 성과포럼&학술연구전시회> : BK21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단(팀)들의 실적을 공유하는 행사임. 성과 내용을 포스터로 게시하였으며, 우수 사업단은 우수성과 발표를 실시
• 연구조교(RA) 지원 프로그램 참여. 2024년 2학기 1명(권[redacted]지:대전 원도심 공간 재현의 함의 분석) 2025년 1학기 2명(박[redacted]이:의례의 구조와 문화실천의 관계성, 오[redacted]윤: ‘공동체 문화도시’ 되기) 이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함
• JBNU-G STAR 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 우수 대학원생(이[redacted]우) 포상 받음

□ 국제화 역량강화
• 국제 학술지 논문 출판, 국제적 연구협력 사업 참가를 통해 연구자의 학술적 발전을 지원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형성,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참가 기회 마련
- 대학본부에서 제공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은 장학금 제공,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등 적극 장려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추가 지원 사업> : 국제적 연구능력 개발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에 논문 구두 발표 승인자에게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함
• <해외 연수 프로그램> : 2025년 1월에 나가사키 지역의 해외 연수를 실시함
• <해외 공동 연구 총서 집필> : 나가사키 해외연수의 성과로 일본 나가사키 종합과학대학 공학과 교수이자 지역연구자인 [redacted] 桓과 공동 저술을 진행하였음
• <가고시마 대학 학술 교류 행사> : 매년 8월 말에 실시하는 가고시마 대학 현지 조사 활동을 학술교류 행사로 확대하여, 양 대학, 대학원생 및 연구자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국제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를 마련, 국제적인 연구협력과 경험을 통한 연구능력 개발 추진
• 국제 학술대회, 포럼 공동주최를 통한 국제적 연구와 학술 네트워크 확대 추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연구 실적을 공유,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

- 산학협력전담인력의 해외연수를 통한 해외 연구기관 협력: 기꼬만국제식문화연구센터, 화식문화국민의회 등
• Global Leaders Podium 프로그램 참여
• JBNU-G 리쿠르팅 중국 홍보박람회에 참여

II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대학원생 연구 실적
• KCI 등재학술지 논문 4편, 해외공동연구저서 1편, 국내저서 1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29회, 연구용역 7건, 수상 3건. 그중 본 연구단 '교육 및 연구 영역 핵심 분야' 별로 대표 실적을 정리
• 특히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석·박사 전공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학술무대에서의 발표 경험과 연구 소통 역량을 강화함. 또한 해외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학문적 담론을 파악함으로써 교육연구단의 국제적 실천역량이 크게 향상
• 2024년도 해외연구가 국제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학문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2025년도의 해외연구는 그 경험을 확장하여 공동연구와 총서 발간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연구성과 창출 단계로 진전 됨. 연구진은 해외연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문적 교류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연구성과의 가시화를 실현

연구단 핵심 영역	우수성과	연구성과내용
문화생태의 변천	논문	- 서[redacted]임(2024), 전주모주의 상품화와 의미변화, 『지역과 문화』
	저서	- 박[redacted]림 외(2025), 『문화로 보는 나가사키_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신아출판사
	수상	- 김[redacted]희(2024), 학문후속세대「리서치 드림」수상(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통해 본 집합기억의 구성과 서사적 재현)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논문	- 김[redacted]수 외(2025),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수상	- 안[redacted]빈(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우수포스터 수상(전주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의 조화와 확장-전주 후백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위기 재구성과 문제틀	논문	- 권[redacted]지(2024), 대전 원도심 공간 재현의 함의 분석: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중동' 지역을 사례로. 『건지인문학』
	저서	- 권[redacted]지 외(2025), 『전환의 시대와 대안적 삶: 지역, 돌봄 그리고 공동체』, 이야기가
	수상	- 이[redacted]우(2025), jbnu우수연구자 선정-총장상(일본 지역 활성화 정책과 미치노에키의 발전과정 : 규슈 미치노에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구축	논문	- 황[redacted]인 외(2024), 미래의 농업엘리트 탄생의 (불)가능성 : 한국농수산대학교

방안 제시		출신 20-30대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학술대회 및 연구용역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권■지(2024),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가족학회 학술대회 - 진■(2024),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 김■희(2024),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박■숙(2024),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 서■임(2024),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박■림(2024),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2025),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 강■환(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2025),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 안■빈(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이■윤(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조■진(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차■호(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이■후(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최■준(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우■준(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김■라(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박■이(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오■윤(2025),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이■우(2025),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 이■후(2025),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 조■진 외(2025),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 김■수 외(2025), 30th CIPA Symposium
	연구용역	- 김■희(2024) 2024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용역(연구원) - 박■림(2024) 남원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육성 사업(연구보조원) - 강■환(2024) 전북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지식: 전통, 생태, 관광을 결합한 전북의 특구모델(BCD 특구모델) 개발(연구보조원) - 안■빈・조■진・차■호・한■구(2024) 선사시대 도구・장신구 제작 프로그램(연구보조원) - 차■호(2024) 완주 일대 마한 철기 집성과 역사적 의의(연구보조원) - 한■구(2024) 완주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 기록화 용역(연구보조원) - 권■지(2025) 여성농업인학습단체 개선 방안 연구(연구보조원)

- 참여교수는 교과목 운영 시 해당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를 심화, 전개함
- 교육연구단의 핵심 아젠다인 인류세의 지방화,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역사생태경관 연구 및 지역위기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 등에 부합하는 연구 지도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교육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함
- 참여교수의 개별 지도와 맞춤형 연구지도 과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에 적합한 학술지와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KCI 논문게재, 해외저널 논문게재, 논문우수상 수상 등 연구 성과 창출함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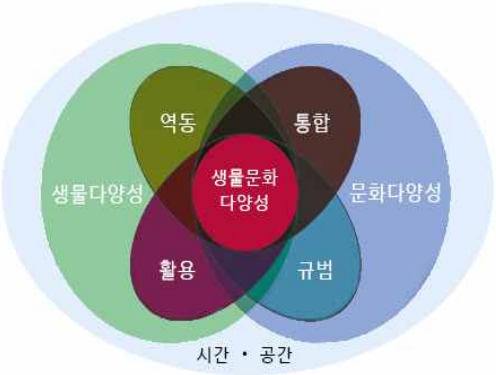
가.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체계의 구성 및 실적

교육과정 목표	교육과정 운영 4대 원칙	운영전략
지역의 문화와 문명을 통합적으로 탐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 '지역문화전문가 ' 양성**	• 융복합에 기반한 창의도전교육	- 지역문화 연구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구성하여 전문성과 실용성동시 확보 - 환경·사회·문화적 위기를 분석,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연구능력 심화 - 학술연구와 실무경험을 연계한 현장기반 학습 시스템 확립 - 다양한 전공과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협업학습 기회 제공 - 공동강의·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화융합적 사고력과 실천적 통찰력을 배양 - 국제적 시각에서 지역문제를 탐구하고 글로벌 대응능력을 함
	• 실천능력에 기반한 사회기여교육	
	• 이론과 응용을 결합한 현장중심교육	
	• 전지구화와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 교육	

가) 융합교육 지향, 현장연구 강조를 위한 교과과정 개설 현황

- 고고학 전공은 늘어나는 박사과정생을 위하여 '젠더와 생태',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세미나', '현대고고학특징과 쟁점', '한국고고학특징과 쟁점', '고고학콘텐츠 및 아카이브구축 세미나'를 개설
- 문화인류학 전공은 이론 영역의 집중적 교육을 위하여, 2025년 1학기 입학자부터 선수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함. 공통교과목은 인류학사 세미나, 에스노그라피 세미나 Ⅰ Ⅱ, 전지구화시대 인류학방법론, 사회과학 고전 강독 5과목 중 3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지정
- 인류세 시대와 지역 위기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과목을 재편성하고, 이를 연계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구축. 더불어 현장 연구를 통해 축적된 최신 지식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
- 지역 고유의 특성과 다양성을 탐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주요 교과목을 재분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을 신설
- '에스노그라피세미나1', '지방의역사와포스트-개발시대의개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의 문화 경제와 예술' 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과 문화적 실천을 연구하고, 글로벌 사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
- 분과학문 체계를 넘어 융복합적 접근을 실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계된 지역 프로젝트의 부족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현장답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전공 간의 학제적 협력이 심화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운영 원칙 또한 융합적 사고에 기반하도록 재정립됨. 이를 통해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문제의식이 더욱 심화
- '역동', '통합', '규범', '활용' 등 교육과정 운영의 4대원칙과 교과목 체계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에서의 인류세와 생물문화다양성이 맺는 관계를 설정해 그에 상응하는 핵심영역을 도출함. 그리고 핵심분야별 대학원 강의 실적과 그에 따른 개편 및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역동	• 문화생태의 변천 - 환경과 인간, 자연과 문화가 연결되는 방식과 관계의 역동성
통합	•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 인간과 환경, 자연과 문화의 조정과 통합의 표현인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규범	• 지역위기 재구성과 문제 틀 도출 - 중앙 의존 등으로 축소·환원되는 지역 위기 재정의
활용	•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 제시 - 지역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을 위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

(1) 문화생태의 변천

□ 에스노그라피세미나1
- 담당 교수 : 박[redacted]진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에스노그라피 세미나1'은 인류세 시대의 문화생태적 변천을 중심 주제로 새롭게 개설된 교과로서,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민족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사유하는 세미나형 강의로 구성되었다. 수업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가 맺는 관계적 연루(relational entanglement)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를 문화생태학적 관점과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통해 논의하였다. 민족지를 단순한 현장기록이 아닌 문화와 생태의 상호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사유의 형식으로 다루며, 인류세적 조건 속에서 문화생태의 변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물문화다양성의 생성과 지속에 관한 통합적 인식을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생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 인류학사세미나
- 담당 교수 : 전[redacted]령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인류학사 세미나는 생물문화다양성 및 인류세 아젠다 연구의 이론적 뿌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다양한 학문적 흐름에 대한 비판적 사유성을 갖추고,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학제 간 통합적 관점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연구단 아젠다의 학문적 선도성을 확보하고, 깊이 있는 이론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강의는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생물문화다양성과 인류세 아젠다를 뒷받침하는 학제 간 융합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지적 통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론에 대한 비판적 사유성을 갖추게 하여, 학생들이 현재의 지역위기를 해석하는 데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적 틀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곧 연구 주제의 선도성과 학문적 깊이를 강화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 전지구화와동아시아
- 담당 교수 : 임[redacted]택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전지구적 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지방의 역동성과 생물문화다양성을 비교 연구하여 국제화 역량을 최대로 강화하는 것이다. 해외 공동 연구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선도적 강좌로, 인류세 시대의 복합적 난제에 대한 글로컬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문제를 국제적 학술 논쟁의 장으로 끌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2) 문화생태·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 고고학연구법특강
- 담당 교수 : 조[redacted]연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고고학연구법특강」은 '문화생태의 변천' 분야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대학원 기초 강의로, 과정주의 고고학의 과학적 분석틀과 후기과정주의 고고학의 해석적 관점을 결합하여 강의를 재편하였다. 이를 통해 고고학 자료를 단순한 유물의 조합이 아니라 장구한 시간에 걸쳐 인간의 행위와 상징적 실천이 환경 및 기술적 조건 속에서 발현되는 문화체계의 표현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강의에서는 야외조사·연대측정·유물분석·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다루며, 기술체계의 변화가 환경 적응과 사회 구조의 변동과 어떻게 맞물려 전개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문화생태의 장기적 변화를 통찰하고, 기술 변천을 매개로 한 인간-환경 관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였다.

□ 중구고고학특강
- 담당 교수 : 김[redacted]중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지역의 역사생태경관 사례 축적 중 중세 및 근세 유적을 중심으로 통합적 분석을 심화하는 것이다. 지역위기 발생의 장기적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여 현재의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지속가능성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지역 발전 양상을 고고학적으로 해독하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 구석기학사
- 담당 교수 : 이[redacted]우
- 개설 학기 : 2024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인류세를 인류 진화의 장기적 궤적 속에서 조망하며, 고인류의 문화적, 생물학적 적응 전략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다. 고고학에서 다루는 역사란 고인류의 물질문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재구성되는 장기적 시간의 궤적이며, 이 강좌는 그 시간의 시작점인 과거를 탐구하여 현재의 지역위기 및 생물문화다양성 문제를 미래의 지속가능성과 연결하는 사유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고고학 연구의 이론적 선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인류의 적응사를 깊이 있게 다루어 현재의 지역위기에 대한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선사기술론
- 담당 교수 : 조[redacted]연
- 개설 학기 : 2024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선사 시대 인류의 기술적 역량을 분석하여 인류세 시대에 필요한 자원 활용 및 생존 전략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활용성 높은 통찰을 얻게 하는 것이다. 특히 선사 시대의 기술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 즉 석기, 도구 사용 등이 사회 구조와 인간-비인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여, 현대 사회의 첨단 과학기술이 인문사회에 미치는 급격한 영향과 변동에 대한 규범적이고 사유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생물문화다양성을 기술 혁신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시각을 제공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생태경관 속에서 기술 발전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 역사고고학특강
• 담당 교수 : 조[redacted]연
• 개설 학기 : 2024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지역의 역사생태경관 축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심화하고, 고고학에서 다루는 역사란 문헌 기록을 넘어 물질 자료를 통해 재구성되는 과거의 생활상이며, 이 강좌는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지역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지역 역학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 유적을 다루어 지역위기의 현대적 발현 양상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한국고고학의 쟁점
• 담당 교수 : 이[redacted]우
• 개설 학기 : 2024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한국 고고학의 최신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역사생태경관 축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류세 연구에 필요한 선도적이고 활용성 높은 고고학적 증거의 해석 능력을 배양하는 토론 중심 강좌이다. 학문적 규범성을 유지하며 논쟁에 참여하는 전문 연구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고고학계의 최신 쟁점과 주요 연구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리적 구성 및 논증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역사생태경관 축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문적 해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를 쟁점의 중심에 배치하고 학문적 논쟁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논문의 학술적 활용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3) 지역위기의 재구성과 문제틀 도출

□ 전지구화지역위기특강
• 담당 교수 : 전[redacted]령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전지구적 위기와 지역위기의 상호 연계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인류세 시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선도적인 이론적 해법을 모색하는 핵심 세미나이다. 생물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의 독자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이론적 사유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곧 전지구적 위기와 지역위기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류세 시대의 난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선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핵심 세미나로 기능

하는 것이다. 생물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의 독자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글로벌 비교 연구를 위한 이론적 사유성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 강좌는 학생들이 대형 연구 과제를 기획하거나 국제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정책적 활용성을 갖춘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다.

(4)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 제시

□ 지방의역사와포스트-개발시대의개발

- 담당 교수 : 이■묵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지속가능성과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위기 극복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생물문화다양성과 역사를 활용하는 실천적 접근을 통해 포스트-개발시대의 선도적 지역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개발 논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지역특화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산학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이 강좌는 지역 발전 연구원, 국토교통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 기획 부서와 연계하여 지역 발전 및 정책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용성 높은 정책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다.

□ 공동체문화특강

- 담당 교수 : 박■진
- 개설 학기 : 2024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공동체문화특강’은 지역문화를 공동체 이해나 단순 사례 검토의 수준에서 다루던 기존 틀을 넘어, 인류세 시대의 지역위기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문제 틀을 도출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원 교과로 개편되었다. 강의는 지방소멸 담론과 인류세 위기의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위기 담론이 형성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화와 생태, 제도, 경제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거버넌스와 문화적 대응 구조의 변화를 인류학적 시각에서 탐구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위기를 외부 담론이 아닌 내부의 경험과 언어로 다시 읽고 구성하는 세미나형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류세적 조건 속에서 지역사회의 위기와 변동을 스스로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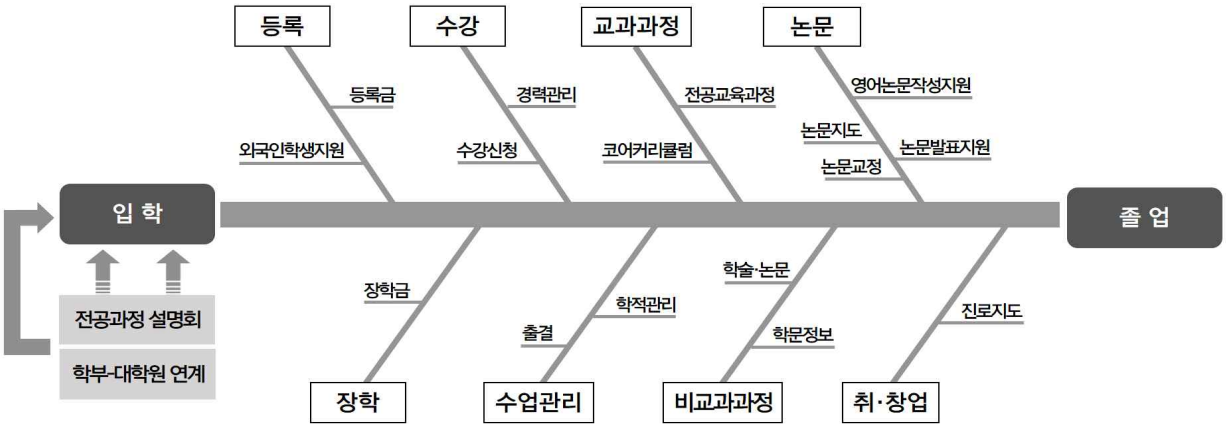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의 문화 경제와 예술

- 담당 교수 : 이■묵
- 개설 학기 : 2025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인류세의 난제 극복을 위해 문화와 경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디자인하는 창의적 사고를 훈련하는 핵심 융합 강좌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활용성 높은 정책 전략을 수립하며, 생물문화다양성 기반의 지역 자원을 경제적 역동성으로 연결하는 선도적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강좌는 인류세 난제 극복을 위한 실천적 연구 능력을 기르는 핵심 융합 강좌로, 문화와 경제를 통합하여 생물문화다양성 기반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디자인하는 창의적 사고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단순한 학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

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략으로 변환하는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융합적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학계 외부의 협력 연구 및 취·창업 분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역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산학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이 강좌는 지역문화 예술 재단, 창업 지원 센터, 문화 관광 산업체와 연계하여 생물문화다양성 기반의 문화 경제 모델 개발 및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실용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창출하는 선도적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다.

나)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학사관리

□ 아래의 주기표에 따른 단계별 관리와 전체 흐름 관리



□ 전(全)주기적 학사관리 운영: 입학에서 졸업 및 취창업까지

입학 전 관리	• 전공과정 설명회(주요 과목 설명 및 연구모임, 학술대회 등 소개)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대한 검토
입학과 등록 관리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학기 단위 연구 계획 수립 설명 •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 절차 도우미 배정 • 장학금 종류 소개 및 선정 기준 설명 • 연구 지원 프로그램 설명 •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수업관리	• 수강신청 전의 충분한 상담과 과목 소개 • 엄격한 출결관리, 과제물 관리 • 스터디 모임 장려 및 발표회 지원
학적과 성적관리	• 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보고서 관리 및 지도 철저 • 수업 보충 자료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학생활동 관리	• 학술대회 및 학술지 정보 취합 및 배포 •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 개인 연구 활동에 대한 답사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연결 • 홈페이지 활성화
비교과 과정 관리	• 연구윤리교육 강화 • 논문작성법 관련 강좌 수강 의무화 • 영어 논문 쓰기 프로그램 진행 • 논문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 진행(한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취·창업 관리	• 경력 플랜에 따른 이수관리 모델 설정 • 과정에 따른 취업 가능한 모델 제시

	• 인턴쉽 장려 및 취·창업 교육 답사 프로그램 진행
학위취득 및 졸업 관리	• 학위논문 표절 검사 의무화 • 챗GPT 관련 검사 의무화 •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장소 마련 • 수료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별도 운영

□ 학생중심의 논문지도 강화

- 박사과정의 프로포잘 발표와 심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대학원 내규 수정
- 박사과정생 논문 프로포잘 발표 시기를 현지조사 시작 전으로 확정
- 심사예정학기 직전 학기말 (6월 말, 12월 말) 논문개요 발표문 제출 의무화

□ 연구 활동 지원 확장

- 국내외 학술활동(학회발표, 논문게재)에 필요한 전액 연구비 지원
-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 연구연수 지원을 통한 연구활동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향상과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
- 2024.09.01.-2025.08.31. 기간 동안 연구 활동 지원 현황

2024년 2학기	• 논문게재 3명 • 국내, 외 학술대회 13명 지원 •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 6명 지원
2025년 1학기	• 논문게재 1명, • 학술대회 16명 지원 • 장단기 해외연수: 장기1, 단기 4명 지원

다) 콜로키움 및 해외협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문소통과 국제적 연구역량 강화

-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연구 역량을 위해 콜로키움, 정기 학술행사,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 해외연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전공별로 매 학기 2회 이상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대학원생은 정기 학술행사에서의 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표현력과 발표 역량을 강화함. 또한 신진연구자, 참여교수,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연구계획 공유와 심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연구단 참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학문적 논쟁의 경험을 축적하며 활발한 학문적 소통이 이루어짐
- 매 학기 개인별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연구 몰입도와 학문적 긴장감을 유지함. 각 발표마다 지정 토론자와 자유 토론 참여자 간의 활발한 의견 교류를 유도함. 이를 통해 상호 피드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킴
- 해외협력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장·단기 해외연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연구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국제적 시야와 비교 문화적 이해 능력을 함양함. 현지 연구자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 현장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 연구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함

□ 2024년 2학기 콜로키움

고고학	• 남원소경의 범위 및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이[redacted]후) • 백제 사비기 상장의례 연구(이[redacted]안)
문화인류학	• 선택된 역사 중심의 스포츠 전시 재현 분석: 풋볼팬타지움을 사례로(권[redacted]지)

	• 전통주 맛의 서구화 : 한국술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서■임)

□ 2024년 2학기 해외 교육연수 프로그램 결과 발표회

발표자	• 나가사키 ‘여성’ 상과 지역연구: 마루야마 유곽 및 유녀를 사례로(권■지) • 커피와 나가사키(서■임) • 설탕 문화를 확장시킨 나가사키 슈가로드(장■기) •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군함도 이미지 소비 현황(박■림) • 일본의 역사문화경관 형성 방안 연구: 나가사키의 데지마 사례를 중심으로(이■안) • 일본 식문화에서 향토요리의 개념에 대한 고찰: 나가사키 싯포쿠요리를 사례로(엄■양)

□ 2025년 1학기 콜로키움

고고학	• 호서・호남지방 축소모형철기 연구 - 철부를 중심으로 - (김■수) • 금강과 만경강권역의 분구묘 비교 연구 (안■빈)
문화인류학	• 자녀돌봄과 자녀돌봄의 의미 구성 분석(권■지) • 전주 구도심의 관광경관 만들기의 이중적 시선(박■숙)

□ 2025년 1학기 해외연수 결과 발표회

발표자	• 미치노에키 발전과정과 거점형태 구분(이■우) • 일본의 ‘와쇼쿠(和食)’와 ‘향토요리’(엄■양)

라)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효과

- 3~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스터디 모임은 교육적, 연구적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 의사소통 및 협력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함. 또한 소규모로 진행하면서 연구주제에 대한 심화 탐구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경험의 공유로 학문적 멘토링 구조가 형성되면서 학문적 사고력과 협업연구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

□ 2024년 2학기 스터디 모임

• 스터디명 : 포카리
• 참 여 자 : 한■구, 조■진, 이■후, 안■빈, 이■안
• 내　　용 :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연구 역량과 학문적 소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본 스터디는 한국 고고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개설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고고학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을 숙달하고 최근 연구 동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스터디는 각 구성원이 특정 연구 주제를 맡아 정리하고 발표하며, 이에 대해 학술적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정보를 구조화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길렀었으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주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했다. 더 나아가, 최신 고고학 연구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 2025년 1학기 스터디 모임

• 스터디명 : 도원결의
• 참 여 자 : 조■진, 이■후, 이■안
• 내　　용 : 본 스터디는 2025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SEAA(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SEAA10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북아시아,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등 인접 지역의 고고학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주기적인 발표 연습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들의 영어 발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발표 자료를 공동으로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터디의 결과로 8월 영국에서 개최된 SEAA 국제학술대회에서 세션 발표를 진행하였다.

• 스터디명 : Museum Anthropology(MA)
• 참 여 자 : 김■희, 김■라, 양■영, 엄■양
• 내　　용 : MA(Museum Anthropology) 스터디는 전시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대 전시는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역사, 문화, 정치, 그리고 기억을 구성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으로 기능해 왔음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스터디는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전시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학술 서적과 논문을 바탕으로 전시의 역사적 발전 및 변화,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등을 심층적으로 살폈으며, 나아가 전시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시에 관심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스터디는 각자의 관심 분야를 전시와 연결 지어 탐구하면서 전시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스터디명 : 아카데이터(Archa-Data)
• 참 여 자 : 김■수, 김■지, 안■빈, 차■호, 한■구
• 내　　용 : 고고학에서 계량적 분석이란 고고학적 자료 분석 과정에서 통계학적 개념과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했다. 본 스터디는 이러한 계량적 분석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실제 고고학 자료에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스터디 그룹원들은 각자 계량적 분석을 적용할 고고학 자료를 선정하고, 직접 분석을 실시하여 원하는 해석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실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스터디를 통해 얻은 궁극적인 성과는 고고학 자료 정리 및 해석 방법 중 하나인 계량적 분석 활용 능력을 확보한 것이며, 이는 향후 석사 논문 작성 시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2) 교육목표 달성 실적

가) 국제적 연구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프로그램 성과

□ 해외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성과

• 2025년 1월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서 이루어진 해외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참여교수를 포함하여,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대학원생 5명이 참가함. 해외조사를 위해 출발 전 3회의 세미나를 진행, 이후 나가사키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2회에 걸쳐 현지 세미나를 진행

• 세미나를 통해 나가사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구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함. 정치, 종교, 음식, 역사 등 참여대학원생의 개별 연구주제에 맞는 현지 조사를 수행,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 해외 현지의 대학원생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연수 종료 후 교육연구단 내부 학술행사, 국제 학술대회, 총서 출판으로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해외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참여대학원생 및 연구진의 국제적 연구 경험을 축적하는 기반을 마련. 그리고 학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연구주제를 심화시키고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게재, 그리고 저서 발간을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구 과정을 실현하는 성과 마련

□ 해외공동연구 성과물인 총서발간
•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학문적 관점을 반영,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다각적 접근을 통한 심화된 연구 성과 도출
• 해외 지역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연구 협력과 학술 교류의 기반 마련
• 공동연구 결과를 공동저서 형태로 출판하여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

□ 전북대 대학원교학부 BK혁신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교육적 활용
• Global Leaders Podium 프로그램
‘Global Leaders Podium’ 프로그램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의 핵심 아젠다인 생물문화다양성, 지역,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학문적 소통과 연구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 특강과 연계된 콜로키움을 통해 지식을 연결하고 학문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2회의 전문가 특강과 1회의 석학 참여 콜로키움으로 구성되어, 참여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를 유도함. 이는 연구 주제에 대한 고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그리고 새로운 융합 연구 주제 제시를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인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성장을 촉진함. 또한 본 프로그램은 연구 정보와 지식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문적 소통과 융합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문화 인력 양성에 기여함

• 리서치드림 포상 프로그램
‘리서치드림’ 포상 프로그램 참여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지원 체계임. 이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의 논문 게재,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특허 등록 부문에서 우수 연구 실적을 포상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데 목적을 둠. 이를 통해 연구단은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장려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 질 높은 연구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단 전체의 학문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교육과정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은 교육의 현장 중심 및 융합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현장 중심 교육과 결합할 지역 프로젝트의 개발과,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공동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가 이루어짐. 또한, 현장 경험을 교육연구단의 핵심 개념인 ’생물문화다양성’과 연결하고, 외부 특강 및 토론을 통해 이 핵심 개념을 대학원생들과 명확히 공유하고자 함.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 분석함으로써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개념인 인류세, 문화 문명, 지역 위기를 연결해 지역 문제 분석 능력과 연구 능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함. 특히, 고고학, 문화인류학 전공이 함께하는 합동 답사를 진행하여 학문 간 교류를 추진함. 결과적으로 지역 문제 분석 능력 향상, 융합 교

육 경험 축적, 전문가와의 교류 강화, 그리고 연구 협력을 통한 연구 주제 및 방법론 등 연구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함

• JBNU-G 우수연구자 포상 프로그램

'JBNU-G 우수연구자 포상 프로그램'은 우수한 연구 실적을 달성한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고 국제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임.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해외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연구 리더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포상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는 일본의 지역 활성화, 지역 거점, 지역 관광의 융합 사례로서, 향후 한일 간 비교 정책 연구로 확장 가능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지역 발전 모델을 검토하고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함

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추진

(1) 이론과 현장연구 기반의 융합적 연구 전문가 강연

□ 전문가 특강: "들리지 않는 고통, 빼앗긴 애도, 정의롭지 않은 돌봄"

- 강　사 : 이[redacted]병
- 일　시 : 2024.12.09.(월) 15:00 ~ 17:00
- 내　용 : 이기병 교수의 특강은 의료인류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통과 돌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계, 사회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제시된다. 강의는 '들리지 않는 고통'과 '정의롭지 않은 돌봄'의 사례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인류학적 시각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질병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으며, 의료실천에 내재된 윤리적·사회적 책임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졌다. 나아가 전문가 강의를 통해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감수성과 분석력을 함양함으로써, 향후 의료·인류학 융합연구나 사회문화적 돌봄의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전문가 특강: "다종민족지: 인간-식물 관계의 인류학적 연구 사례들"

- 강　사 : 황[redacted]선
- 일　시 : 2024.12.10.(화) 15;00 ~ 17:00
- 내　용 : 본 강의는 다종민족지에 관한 연구로서 식물-인간 관계의 인류학적 연구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종민족지는 인간과 비인간 종을 아우르는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이루는 삶과 문화를 구성원 모두의 행위력을 전제하고 민족지적으로 분석 및 기술하는 작업으로 정의한다. 즉 인간과 비인간(동물, 식물, 미생물, 기술 등)이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속에서 상호 구성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환경인류학, 생물학, 과학기술학(STS), 탈인간 인문학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과 물질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포스트휴먼(posthuman) 인류학적 흐름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특강 내용을 기반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사회적·정치적·윤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다층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생태 위기 시대에 인류학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탐색하게 하였다. 또한 현장 기반 연구를 통해 생명, 환경, 사회가 연결되는 구조적 상호작용 이해하고 관계론적 사고, 그리고 다학제적 연구 방법론을 체득할 수 있었다.




전문가 특강 사진

□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특강 1차: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의 현장-팔복문화산단,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 강　사 : 김[redacted]정
- 일　시 : 2024.11.22(토) 13:00 ~ 15:00
- 내　용 :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의 현장사례를 제시한 본 강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계획을 살펴보았다. 전주시는 쇠퇴한 팔복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팔복예술공장 등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앵커 사업을 추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예술가 지원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K-소리 대중화 및 확산을 도모하며, 탄소문화산업 발굴 및 사업화 등 지역 기반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전략은 산업단지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전주를 문화와 예술이 선순환하는 혁신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도시의 비전과 지역활성화 전략을 분석·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였다. 즉, 예술로 지역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파악해 문화인류학적 시각에서의 현장연구와 정책적 실천의 연결고리를 경험적으로 학습하게 한 교육적 성과를 지닌다.




팔복예술공장 강의(좌)/ 팔복예술공장 현장(우)

□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특강 2차: “디지털 고고학 국내외 사례와 전망”

- 강　사 : 최[redacted]화
- 일　시 : 2024.12.04.(수) 15:00 ~ 17:00
- 내　용 : 디지털고고학 국내외 사례와 전망에 관한 강의는 고고학 연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최근의 변화와 그 학문적, 실천적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고고학(Dig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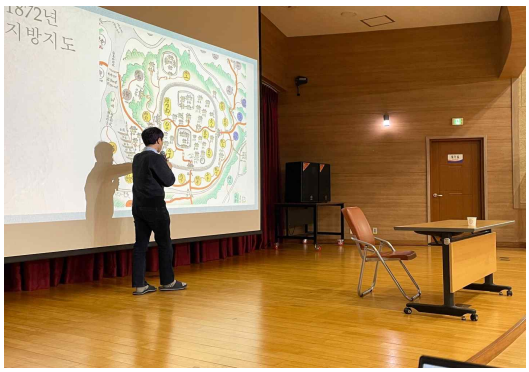
Archaeology)을 단순히 기술을 활용한 보조적 도구로 보지 않고, 고고학의 조사・분석・보존・활용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분야로 설명하였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연구 환경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3D 스캔, GIS(지리정보시스템), 드론 영상,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기술이 고고학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전환이 이미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특강은 고고학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학문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는 고고학 연구의 미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특히 기술과 인류학적 시각의 융합을 통해 다학제적 연구 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디지털 기술을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학문적 탐구의 핵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고고학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특강 3차: “진도, 세월호, 그리고 현장”

- 강　사 : 이[redacted]정
- 일　시 : 2024.12.18.(수) 14:00 ~ 15:00
- 내　용 : 본 강의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이후 2017년 진도에서의 삼년상 경험을 2024년의 시점에서 회고하며,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와 연구자의 위치를 인류학적 시각에서 성찰한 사례를 다루었다. 국가적 재난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자의 윤리적・사회적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실제 현장 경험과 결합한 실천적 인류학 연구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진도 주민의 복합적 감정과 현장 연구자의 발언 위치를 재고함으로써, 재난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의 책무와 현장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참여 대학원생의 현장경험을 연구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였고, 외부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핵심개념인 ‘생물문화다양성’의 이해를 심화하고 공유하였다.

□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특강 4차: “삼국시대 항해를 통해 본 교역과 전쟁”

- 강　사 : 이[redacted]석
- 일　시 : 2024.12.18.(수) 15:00 ~ 16:00
- 내　용 : 본 강의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상 교역의 흐름 속에서 선박이 수행한 역할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가야의 철 수출과 왜・대방군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고대 해상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김해 봉황동 출토 선박의 복원과 항로 복원 연구를 통해 삼국시대 항해 기술과 교역 경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고대 항로가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 전략적 교통망이었음을 밝히며, 교역과 전쟁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연안 항로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복합적 수송체계로 기능해온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지역의 생생한 현장 답사・조사・분석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주요 개념인 인류세-문화문명-지역위기의 연계를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현장기반 학습을 토대로 지역문제 분석력과 연구 수행능력 강화의 기초 마련하였다.





진도답사현장(좌)과 지역전문가특강(우)

□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특강 5차: “남원읍성 성곽의 구조와 축조기법”

- 강　　사 : 이[redacted]완
- 일　　시 : 2025.01.07.(화) 13:00 ~ 18:00
- 내　　용 : 본 강의는 남원 읍성과 관련하여 진행된 주요 발굴조사 성과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북성벽 및 해자, 그리고 양마장 일대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강의에서는 먼저 위성사진과 근대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형적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실제 발굴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북성벽의 잔존 상태, 해자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양마장 유적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발굴조사는 남원 읍성의 전체적인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향후 읍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특강 6차: “생물문화다양성과 지역위기 극복”

- 강　　사 : 천[redacted]윤
- 일　　시 : 2025.01.08.(수) 14:00 ~ 16:00
- 내　　용 : 본 강의는 전라북도의 지역 발전 동력이 되는 역사·문화자산과 생태·환경자산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생태관광이 거두었던 성과와 더불어 단순한 환경 보존을 넘어선 활용의 한계를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을 접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생물문화다양성 생태관광 플러스 전략은 전북의 고유한 생태와 문화가 연결되는 지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강의는 전북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 생태계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고도화연구지원 남원현장답사 및 특강(좌)/ 생물문화다양성 특강(우)

나.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BK21 4단계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제구조 변화, 일자리 악화, 인구구조급변, 양극화, 환경악화, 저성장의 지역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

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관련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방향

가) 산업・사회 문제 해결 관련 개설 교과목 구성

핵심분야	주요 내용	개설 과목
문화생태의 변천	- 인류세 지방화와 생물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이론적 분석 및 연구 역량 강화	· 에스노그라피세미나1 · 인류학사세미나 · 전지구화와동아시아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 인간과 환경, 자연과 문화의 조정과 통합의 표현인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 고고학연구법특강 · 중구고고학특강 · 구석기학사 · 선사기술론 · 역사고고학특강
지역위기 재구성과 문제틀	- 중앙 의존 등으로 축소·환원되는 지역 위기 재정의	· 지방의역사와포스트-개발시대의개발 · 공동체문화특강
지속가능한 미래구축 방안 제시	- 지역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을 위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	· 지속가능성을위한지방의문화경제와예술

나) 기존 교과목 프로그램과 비교과과목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

□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전문가 특강 기획
- 인류세, 생물문화다양성을 통한 지역 문화자원 활용
  - “다종민족지: 인간-식물 관계의 인류학적 연구 사례들”, 강연 황[redacted]선
  - “들리지 않는 고통, 빼앗긴 애도, 정의롭지 않은 돌봄”, 강연 이[redacted]병
- 역사생태경관의 사례를 통한 인간과 환경, 자연과 문화의 관계 재구성
  - “디지털 고고학 국내외 사례와 전망”, 강연 최[redacted]화
  - “삼국시대 항해를 통해 본 교역과 전쟁”, 강연 이[redacted]석
  - “남원읍성 성곽의 구조와 축조기법”, 강연 이[redacted]완
- 지역위기 극복과 문제틀 도출
  - “진도, 세월호, 그리고 현장”, 강연 이[redacted]정
  - “생물문화다양성과 지역위기 극복”, 강연 천[redacted]윤
- 지속가능한 미래구축의 방안 제시
  -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의 현장-팔복문화산단,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강연 김[redacted]정

□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활용 교육

• 유형문화유산 발굴조사 및 활용 교육
- 고고학 발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의 발굴기관에 학생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경험을 익히고 기록,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교육
- 선사시대 도구·장신구 제작 프로그램, 2024
- 완주 일대 마한 철기 집성과 역사적 의의, 2024
- 완주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 기록화 용역, 2024
• 지역의 문화자원 수집과 활용 교육
-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직접 조사·채록하며 자료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을 학습하도록 교육
-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용역, 2024
- 남원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육성 사업, 2024
- 여성농업인학습단체 개선 방안 연구, 2025
• 생물문화 다양성 연구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용 교육
- 학생들이 지역의 생물·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생태·문화·경제의 연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교육
- 전북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지식: 전통, 생태, 관광을 결합한 전북의 특구모델(BCD 특구모델) 개발, 2024

□ 융복합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획
• 쌀·삶·문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컬 '하기' (Doing Glocal) 학술대회 준비 추진
•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 장소와 같은 주제들을 결합하여 지방적 지식의 의미를 재정의하기 위한 자체 학술대회로서, 유산화 과정과 (지방) 문화유산의 확장을 대주제로 설정
• 대학원 혁신 국제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2026년 1월 5-6일 개최 계획 확정

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실적

가) 대학원생의 연구과제 참여 및 현장 조사 실습을 통한 교육활동

□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용역」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김[redacted]희, 2024.05.~10)
• 내용 및 의의
- 본 연구용역은 고창군 문화예술인의 구술 채록 및 예술활동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이력과 예술적 성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추진됨. 고창군은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예술인과 문화 매개시설에 대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미비함. 이에 본 연구는 명인·명장 및 원로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구술 기록과, 청년 예술인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전업 예술인 조사를 병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생애사와 창작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고창군의 예술인 지원정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역 문화자원의 체계적 기록과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됨

□「남원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육성 사업」 연구과제 참여 (석사과정 박[redacted]림, 2024.06.~2025.02)
• 내용 및 의의
- 본 연구용역은 본 연구 용역은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남원 시민들의 문화적 정

체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1931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춘향제는 일제 강점기, 6.25전쟁, 민주화 시기 등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어 옴. 그러나 전승 환경이 점차 변화하면서 지역민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커뮤니티의 연대 기능이 약화되면서 춘향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공동체적 전승환경의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춘향제의 문화적 실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됨 이를 통해 남원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춘향제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초 자료를 통합 구축하여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춘향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전북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지식: 전통, 생태, 관광을 결합한 전북의 특구 모델(BCD 특구모델) 개발」 연구과제 참여 (석사과정 강[redacted]환, 2024.06.~12)

• 내용 및 의의

- 본 연구용역은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 BCD) 개념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자원과 생태·문화적 특성을 통합한 시범 특구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생물문화다양성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전통, 지식, 신앙,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을 의미하며, 지역 고유의 농업 관행, 전통 의학, 토착 종자, 신성한 자연 공간 등의 요소를 포괄함. 본 연구에서는 BCD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의 흩어진 자원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자산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구상하고자 함.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연계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크며, 향후 산업·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의미 도출

□「선사시대 도구·장신구 제작 프로그램」 연구과제 참여 (석사과정 안[redacted]빈, 조[redacted]진, 한[redacted]구, 차[redacted]호, 2024.11.)

• 내용 및 의의

- 본 연구용역은 정읍시립박물관 주관으로 진행된 ‘선사시대 도구·장신구 제작 프로그램’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과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업임. 참여 학생들은 박물관 전시 유물(빗살무늬토기, 반달형 돌칼, 곡옥, 백제 금동신발 장식) 제작키트를 활용한 제작 및 사용법 교육에 직접 참여함 또한 유물 설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체험을 넘어 유물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 이 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무 교육 경험을 축적하고, 매장문화재의 중요성과 교육적 활용 가치를 체득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학위논문 및 연구활동에도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함

□「완주 일대 마한 철기 집성과 역사적 의의」 연구과제 참여 (석사과정 차[redacted]호, 2024.07.~2025.01)

• 내용 및 의의

- 본 연구용역은 완주 지역의 마한 철기문화를 집성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참여 학생은 철기유물의 분류·정리와 시기 구분 작업을 담당함. 특히 출토 유물의 도면을 작성하며 고고학적 분석의 전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현장연구의 기초 역량을 체득함. 이러한 경험은 향후 BK21 교육연구단의 연구주제 및 석사학위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전문연구자로서의 분석력과 연구윤리를 함양할 수 있었던 중요한 교육·연구 경험으로 평가됨

□「완주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 기록화 용역」 연구과제 참여 (석사과정 한[redacted]구, 2024.07.~2025.01)

• 내용 및 의의

- 본 연구용역은 완주 일대 마한 철기관련 유적을 집성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 유물과 유적을 통한 마한 문화의 정체성과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함. 참여 학생은 철기 유적의 분포와 생산·전파 양상을 분석하며, 마한 소국이 철기 생산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성장했음을 학문적으로

확인.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은 자료 수집, 분석, 기록화 과정 전반을 실습하며, 고고학적 연구방법과 역사적 해석 능력을 심화하고, 학위논문 및 후속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확보함

□「여성농업인학습단체 개선 방안 연구」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권■지, 2025.07.~09)

• 내용 및 의의

- 본 연구용역은 1950년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식적으로 발족한 '생활개선회' 단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단체의 개선과 성장을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자 추진된 연구임. 프로젝트를 통해 단체의 운영 구조, 인력 구성, 재정 상태, 활동 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단체 내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던 문제점이나 구조적 한계를 발견·공론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생활개선회는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천해 온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왔지만,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한계가 존재함이 확인. 이에 프로젝트는 미래 농업과 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학습단체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여학생은 단체의 운영 구조, 인력 구성, 재정 상태,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발견·공론화하는 데 기여.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학습단체가 농업·농촌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와 조직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교육·연구적 경험을 축적함

나) 국제협력사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사회 문제해결 연구 성과

□ 글로벌 교육협력과 산업·사회 문제 해결 연구 총서「문화로 보는 나가사키_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2025.08

• 내용 및 의의

- 본 프로그램은 인류세, 지방,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생태, 지역위기 극복, 문화자원, 지속가능성 등 교육연구단의 핵심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이론과 현장을 융합한 다층적 연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국제 학술 교류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둠. 연구자들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의 복합적 문화생태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천적 지역문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함. 현장 중심의 융합 연구 결과는 논문 게재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로 확산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산업·문화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학술적·실무적 성과로 이어짐. 최종적으로, 이번 연구활동은 학술총서 발간으로 결실을 맺으며, 연구단의 "이론과 현장이 결합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원"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형 연구 체계를 구축함

□「아제르바이잔 쿠르간 유적 발굴조사」 발굴조사 참여 (석사과정 이■후, 2025.07)

• 내용 및 의의

- 한국유라시아문명연구회와 SEBA(Seoul-Baku, Azerbaijan-Korean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Public Union: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가 주관한 아제르바이잔 쿠르간 유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카라바흐 지역 피쥴리주에 위치한 예디테페 쿠르간 5호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발굴유적은 철기시대인 기원전 8~6세기경 남캅카스 지역의 복합적 매장의례, 사회 계층화, 그리고 금속문화의 확산 양상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평가된다. 전년도에는 3호와 4호 쿠르간이 조사되어 마구류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과 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금년도 조사에서는 5호분의 매장주체부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현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문의 융합적 연구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교육연구단의 목표인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와 사회적 기여를 실현함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가.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4년 2학기	10	8		18
	2025년 1학기	12	7		19
	계	22	15		37
배출 (졸업생)	2025년 2월 졸업	1	1		2
	2025년 8월 졸업	1	0		1
	계	2	1		3

나.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1) 우수 대학원생 현황

□ 참여대학원생 현황

• 2024년 2학기

전 공	과 정	이 름
고고학 (8)	석사	박[redacted]현(4), 이[redacted]윤(4), 차[redacted]호(4), 한[redacted]구(4), 이[redacted]후(2), 이[redacted]안(2), 조[redacted]진(2), 안[redacted]빈(1)
문화인류학 (10)	석사	박[redacted]림(2), 강[redacted]환(1)
	박사	권[redacted]지(4), 박[redacted]숙(4), 장[redacted]기(4), 호[redacted](4), 진[redacted](2),
	박사수료	서[redacted]임(6), 김[redacted]희(6), 황[redacted]인(8)

• 2025년 1학기

전 공	과 정	이 름
고고학 (6)	석사	이[redacted]후(3), 이[redacted]안(3), 조[redacted]진(3), 안[redacted]빈(2), 김[redacted]수(1), 김[redacted]지(1)
문화인류학 (13)	석사	박[redacted]림(3), 강[redacted]환(2), 김[redacted]라(1), 박[redacted]이(1), 우[redacted]준(1), 최[redacted]준(1)
	박사	진[redacted](3), 오[redacted]윤(1) 이[redacted]우(5)
	박사수료	서[redacted]임(7), 김[redacted]희(7), 권[redacted]지(5), 박[redacted]숙(5),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현황

가) 우수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 장학금 지원

- 2024년 2학기: 지원대학원생 박사과정 5명, 수료생 3명, 석사과정 10명에 대하여 박사과정 160만원, 박사수료 130만원, 석사과정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매월 지원함(단, 학기 중 취업자는 도중 지원 중지)
- 2025년 1학기: 지원대학원생 박사과정 3명, 수료생4명, 석사과정 12명에 대하여 박사과정 160만원, 박사수료 130만원, 석사과정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매월 지원함(단, 학기 중 취업자는 도중 지원 중지)

나) 연구활동 활성화와 학문적 성과 고도화를 위한 지원

- 2024년 2학기: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3명 지원, 논문게재 3명 지원, 소모임 7명 지원, 해외 교육프로그램 1개 진행
- 2025년 1학기: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22명 지원, 논문게재 2명 지원, 소모임 8명 지원, 저서 발간 6명 지원, 해외 교육프로그램 1개 진행

다)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연구 활동 실적에 따라 우수 대학원생에게 성과급 지급
- 성과급은 한 학기 동안의 학술실적을 기준으로 교육연구단에서 지정한 성과표 해당 점수 합산액에 비례하여 대학원생에게 2월말, 8월말에 지급
- 2024년 2학기: 참여대학원생 18명에게 총 910,000원 지급
- 2025년 1학기: 참여대학원생 19명에게 총 2,304,000원 지급

라)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 대학원연구실은 논문 작성중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독립된 개인 학습공간과 모두가 사용가능한 학습공간을 함께 겸비하고 있으며, 공용 물품 등을 구매하였음

- 고고학 전공생 대학원 연구실 : 인문대 2호관 110호, 12명 사용가능
- 문화인류학 전공생 대학원 연구실 : 인문사회관 527호, 16명 사용가능
- 대학원생 세미나실 : 인문대 2호관 109호
- 고고문화인류학과 자료실 : 인문대 2호관 217호

다.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4년 8월 졸업	석사	0	0	0	0	0	0	0
	박사	0			0	0	0	
2025년 2월 졸업	석사	1	0	0	0	1	1	100
	박사	1			0	1	1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가. 참여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1) 참여대학원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목록

구분	성명	논문제목	게재정보			저자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 학회명)	권(호)	발행일	
논문	권■지	대전 원도심 공간 재현의 함의 분석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중동’ 지역을 사례로	건지인문학	41	2024.10	1인
논문	서■임	전주모주의 상품화와 의미변화	지역과문화	11(4)	2024.12	1인
논문	황■인	미래의 농업엘리트 탄생의 (불)가능성 :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20-30대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2(4)	2024.12	2인
논문	김■수/이■후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ISPRS Annals	48	2025.9	3인

2) 참여대학원생 논문 실적의 우수성

□ 권■지 “대전 원도심 공간 재현의 함의 분석: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중동’ 지역을 사례로”

- 이 연구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연구자는 대전 원도심 ’중동’ 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성매매 집결지라는 현실을 은폐하고 낭만적인 노스탤지어 담론으로 공간의 의미를 치환하는 과정을 면밀히 해부한다. 지자체의 기획 하에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재현 체계가 해당 문제의 비판적 사유를 어떻게 봉쇄했는지 밝힘으로써, 지배적 의미망에 포섭되지 않은 도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비판적 시각을 확보했다. 이는 도시인류학과 공간 재현 연구 분야의 담론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 황■인 “미래의 농업엘리트 탄생의 (불)가능성 :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20-30대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 농수산대학교(한농대) 출신 청년 농업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이 연구는 농업 엘리트 탄생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조명한다. ’성공한 농업인’, ’농업 CEO’로서의 상승 열망이 경제적 지위 획득, 탄탄한 네트워크(4-H), 그리고 전문성 발휘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발현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동시에 영농 기반이 취약한 창업농에 대한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경제적 경영자를 넘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사회적 농민’으로서의 엘리트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청년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현장 기반 담론을 형성했다.

□ 서■임 “전주모주의 상품화와 의미변화”

- 향토 음식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전주모주 사례를 통해 상세히 추적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모주가 '전주모주'로 명칭이 변화하고 전주 한옥마을의 스토리텔링에 활용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상품화 과정에서 문헌적 근거와 지역민의 기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제주도 대비모주 일화가 차용되어 지역적 관련성이 약화된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 시대 기록과 지역민의 기억을 재검토하여 고유한 스토리텔링 개발을 제언함으로써, 향토 음식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의 모범을 보였다.

□ 김■수(외2명)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 김■수 외 2인의 공동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 활용에 접목한 학제 간 융합적 접근이 돋보인다. 국가 지리 정보와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주와 완주 지역의 문화유산 분포를 시각화하고 커널 밀도 분석으로 중심성을 파악했다. 이는 단순히 유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시대와 기능, 등급별 분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탐사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유산 교육과 시민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 가능성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완성도가 높다.

3) 참여대학원생 저서

성명	출판정보				저자수
	서적명	ISBN 발간등록번호	출판일	출판사	
권■지	전환의 시대와 대안적 삶: 지역, 돌봄 그리고 공동체	979-11-991670-3-2	2025.3	이야기가	11명 (권■지,안■영, 김■숙,진■숙, 박■현,김■정, 장■은,김■정, 홍■경,이■희, 강■연)
권■지/서■임/ 박■림/이■안	문화로 읽는 나가사키 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979-11-94595-94-6	2025.8.29	신아출판사	8명 (권■지/서■임 /박■림/장■기 /이■안/임■택 /이■/엄■양)

4) 저서의 우수성

□ 『전환의 시대와 대안적 삶: 지역, 돌봄 그리고 공동체』

- 『전환의 시대와 대안적 삶: 지역 돌봄 그리고 공동체』는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의 '전환의 시대와 젠더' 연구총서 2권으로, 지역, 여성, 돌봄, 공동체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지역(로컬)에서 돌봄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리고 돌봄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젠더 관점을 통해 삶의 대안으로서 돌봄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저서에서 말하는 '전환의 시대'란 사회, 환경,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과 삶의 재구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젠더 관점을 통해 자본주의 성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돌봄과 공동체 기반의 삶을 다시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본 저서에 실린 연구자 공동 집필 논문의 제목은 「왜 초등돌봄노동은 취약한가: 돌봄전담사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초등돌봄노동

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공적 돌봄 영역에서 여성 돌봄노동자가 처한 문제와 사회적 위치를 성찰하는 데 의의를 둔다.

□ 『문화로 읽는 나가사키 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 본 저서는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인류세 시대, 생물문화다양성 연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과 미래구축 교육연구단>이 진행한 해외교육프로그램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지난 해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서 진행된 해외교육프로그램에 이어, 2025년 1월에는 나가사키 지역에서 후속 해외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류세, 지방,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생태, 지역위기극복, 문화자원, 지속가능성, 미래 구축 등 교육연구단의 핵심 연구주제를 토대로, 이론과 현장이 융합하는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학술 교류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의 복합적 문화생태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실천적 지역문화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융합 연구는 해외연구 이후 논문 게재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로 이어져 연구 성과의 확산과 학문적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연구 활동은 학술총서 발간으로 결실을 맺으며, 연구단의 '이론과 현장이 결합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원'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었다.

나.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1)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발표 실적 목록

성명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주관 기관	발표논문	발표자수
권[redacted]지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지방화 Local Knowledge and Localizing Future(s)	2024. 11.8. ~ 9.	한국문화인류학회/동아시아인류학회	재현된 과거와 연결된 체험, "선택된 역사 중심의 스포츠 전시재현 분석" -풋볼팬타지움 사례를 중심으로	1인
진[redacted]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지방화 Local Knowledge and Localizing Future(s)	2024. 11.8. ~ 9.	한국문화인류학회/동아시아인류학회	화교 공동체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중국 톈현(靑田縣) 출신 화교를 대상으로	1인
김[redacted]희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지방화 Local Knowledge and Localizing Future(s)	2024. 11.8. ~ 9.	한국문화인류학회/동아시아인류학회	재난 극복 기록물의 유산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중심으로	1인
박[redacted]숙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지방화 Local Knowledge and Localizing Future(s)	2024. 11.8. ~ 9.	한국문화인류학회/동아시아인류학회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도심의 경관만들기	1인
서[redacted]임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지방화 Local Knowledge and Localizing Future(s)	2024. 11.8. ~ 9.	한국문화인류학회/동아시아인류학회	지방적 지식을 활용한 지역 술 만들기: 군산시 '술익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1인

박■림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지방화 Local Knowledge and Localizing Future(s)	2024. 11.8. ~ 9.	한국문화인류학회/동아시아인류학회	춘향영정을 둘러싼 상징 경합	1인
권■지	가족, 재생산을 다시 생각한다	2024.12.14	한국가족학회/순천향대학교	자녀돌봄과 자기돌봄의 의미 구성 분석: 30~50대 양육자의 돌봄 실천을 바탕으로	1인
강■환	다중위기시대, 지역의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 12.6. ~ 7.	한국지역문화학회/영암문화관광재단	장소의 시간성에 따른 문화유산의 활용: 전주문화유산야행을 중심으로	1인
안■빈	다중위기시대, 지역의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 12.6. ~ 7.	한국지역문화학회/영암문화관광재단	매장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동북아시아 3~7세기 왕릉 사례를 중심으로 -	1인
이■윤	다중위기시대, 지역의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 12.6. ~ 7.	한국지역문화학회/영암문화관광재단	고창지역 마한 주거지 출토 장란형토기의 기하학적형태 분석	1인
조■진	다중위기시대, 지역의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 12.6. ~ 7.	한국지역문화학회/영암문화관광재단	고고유적을 통한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의 고찰	1인
차■호	다중위기시대, 지역의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 12.6. ~ 7.	한국지역문화학회/영암문화관광재단	고분 속 마한 역사와 문화사업의 융합 -영암 '마한문화공원' 을 중심으로-	1인
이■후	남원성을 통해 본 남원의 새로운 이해	2024.12.12	남원시/전라문화유산연구원	남원읍성의 공간구조	1인
최■준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상화폐담론의 지속과 변화에서 대학생 투자의 의미	1인
우■준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팬덤정치' 의 양극화 '1찍' 과 '2찍' 의 의미를 중심으로	1인
박■림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지역 축제의 전시된 시민성: 남원춘향제 대동 길놀이를 사례로	1인
서■임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막걸리빚기 유산화와 집합기억의 구성	1인
김■희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재난을 유산화하기: '태안 기름유출 사건' 의 콘텐츠화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억의 재편	1인

김[redacted]라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기도 공간은 어떻게 전시되는가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과 호남기독교박물관을 중심으로	1인
박[redacted]이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지역공동체: 등재 전후 임실필봉농악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1인
오[redacted]윤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체 문화도시' 되기: 완주군의 변형과 재배치	1인
이[redacted]우	Shaping Futures: East Asia as Practice	2025.7. 14. ~ 16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일본 지역 활성화 정책과 미치노에키의 발전과정 : 규슈 미치노에키를 중심으로	1인
박[redacted]림	Shaping Futures: East Asia as Practice	2025.7. 14. ~ 16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춘향 영정을 둘러싼 상징 경합	1인
강[redacted]환	Shaping Futures: East Asia as Practice	2025.7. 14. ~ 16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Temporality of Nighttime Local Festivals: Focusing on Night of Jeonju and Heritage Story	1인
안[redacted]빈	대전환의 시대, 문화로 미래도시의 길을 묻다	2025.6 12. ~ 13	전주문화재단/한 국지역문화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예술경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의 조화와 확장 : 전주 후백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1인
강[redacted]환	대전환의 시대, 문화로 미래도시의 길을 묻다	2025.6 12. ~ 13	전주문화재단/한 국지역문화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예술경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지역민의 참여: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1인
조[redacted]진/ 이[redacted]안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2025.8. 19. ~ 22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Ancient East Asian Society: Focusing on the Baekje Tombs	3인
이[redacted]후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2025.8. 19. ~ 22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Critical Examination of Later Baekje Archaeology, Korea - Through Keyword Analysis	3인

김■수/ 이■후	30th CIPA Symposium “Heritage Conservation from Bits: From Digital Documentation to Data-driven Heritage Conservation	2025.8 25. ~ 29	CIPA Heritage Documentation, ISPRS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3인

2) 학술대회 발표의 우수성

□ 권■지 “재현된 과거와 연결된 체험, “선택된 역사 중심의 스포츠 전시재현 분석”-풋볼팬타지움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국내 축구박물관 풋볼팬타지움의 전시 재현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스포츠 종목을 전시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자는 특히 ’2002 월드컵’이라는 성공 신화가 전시를 통해 본질화 및 균질화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재현의 특성이 과거의 영광을 계속하고자 하는 성격을 띤다고 진단했다. 이는 학술대회의 핵심 키워드인 ’지방’과 ’지방화’의 맥락에서 ’선택되지 못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한국 축구 역사가 특정 권력의 틀 안에서 재현되는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 권■지 “자녀돌봄과 자기돌봄의 의미 구성 분석: 30~50대 양육자의 돌봄 실천을 바탕으로”

-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변동과 사회 재생산 위기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 속에서, 본 연구는 30~50대 양육자의 돌봄 현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자녀돌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정서와 더불어, 돌봄 주체가 확장하는 ’자기돌봄’의 의미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연구 결과, 자녀돌봄과 자기돌봄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돌봄’이라는 이중의 요구가 구성됨을 밝혀내어, 이는 곧 ’돌봄부정의(돌봄 불평등)’를 비판하는 지점과 합류될 수 있는 학문적 통찰을 제시하였다. 돌봄 제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돌봄 영역 전반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확장시킨 수작이다.

□ 진■ “화교 공동체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중국 톈현(靑田縣) 출신 화교를 대상으로”

- 기존 화교 연구가 광둥성, 푸젠성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주민 비율이 높은 칭톈현 출신 화교 공동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희소성을 확보했다. 칭톈현 주민들이 해외, 주로 유럽으로 대거 이주하는 역사적 맥락과 중국 국가정책 간의 긴밀한 관계를 분석하여 거시적 환경 하에서의 이주 발전 양상을 규명했다. 특히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 네트워크가 해외 이주 및 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임을 밝혀내, 중국 화교의 공동체 결속 원리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김■희 “재난 극복 기록물의 유산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발생 15년 후, 그 극복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변모한 현상에 주목하며 재난 극복의 ’유산화’ 과정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탐색했다. 전쟁, 기후변화 등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학술대회 주제와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논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난을 둘러싼 기록이 지역적 차원에서 세계적 유산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여, ’지역에 연루된 실천’ 세션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였다.

□ 박■숙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도심의 경관만들기”

- 급격한 도시화로 쇠퇴한 전주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분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성의 효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논증했다. 연구는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치하고자 했음에도, 관광객의 소비가 구도심까지는 확장되지 않는 경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다만, 관광 경관으로 변모하는 공간이 지역민에게 직접적 경제 이익 대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긍정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여, 향후 관광 경관 조성 사업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서■임 "지방적 지식을 활용한 지역 술 만들기: 군산시 '술익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전통 담론에서 주변화되었던 일본식 청주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이 물질이 군산시의 근대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청주 산지였던 근대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일본식 청주를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인류학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인 '과거의 해석, 활용, 재현'을 '술'이라는 일상적 물질과 특정 지역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통해 지방적 지식이 지역 활성화의 문화 인프라로 작용하는 양상을 밝혀냈다.

□ 박■림 "춘향영정을 둘러싼 상징 경합"
- 고전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춘향이 남원 시민들에게 상징이자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춘향제사의 핵심인 춘향 영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분석했다. 연구는 이 논쟁이 시민들이 공유하는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매개체임을 입증하며, 춘향이라는 상징이 다양한 해석을 포용하면서도 지역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논증했다. 지역 축제가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 지역민의 정체성 및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실천의 장임을 학문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 강■환 "장소의 시간성에 따른 문화유산의 활용: 전주문화유산야행을 중심으로"
- 전주문화유산야행 사례를 통해 야간형 지역 축제가 장소의 시간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자는 이야기술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갈등 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야간형 축제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운영적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현장성 높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가치를 지닌다.

□ 안■빈 "매장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동북아시아 3~7세기 왕릉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취지와 연결하여, 매장문화유산이 지역 문화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동북아시아 3~7세기 왕릉 사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다중위기시대, 지역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이라는 학술대회 주제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포스터 세션에서 제시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국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매장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 이■윤 "고창지역 마한 주거지 출토 장란형토기의 기하학적형태분석"
- 마한 사회의 보편적 일상용 토기인 장란형토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하학적형태분석법이라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시범적인 논의이다. 주거지 출토품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취사 활동 관련 토기의 형태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창 지역 내 취락 간 토기 형태 차이를 밝히고 이를 지역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탐색했다. 고고학 물질자료 분석에 최신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마한 사회의 생활상 및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방법론적 진전을 이룩했다.

□ 조■진 "고고유적을 통한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의 고찰"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강조되는 지역의 독자성 확립에 있어 고고유적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

조한 연구이다.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의 연결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 사례를 통해 고분이 지닌 문화적 다원성과 고대 일본과의 교류 관계 상징성이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발굴에만 머무르고 있는 고고유적의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 문화 콘텐츠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

□ 이■후 “남원읍성의 공간구조”
- 20여 년간 축적된 남원 및 남원읍성의 발굴 자료를 집대성하여, 통일신라 시기 남원의 공간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의미를 갖는다. 남원 사례뿐만 아니라 중국, 신라 왕경 등의 자료를 폭넓게 제시하여 고대 도시 계획 및 지방 성곽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남원성을 통해 본 남원의 새로운 이해라는 학술대회 주제에 맞춰,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토대로 남원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 차■호 “고분 속 마한 역사와 문화사업의 융합 -영암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
- 고고학 물질자료 분석에서 벗어나, 발굴된 유적을 사회로 환원하여 얻는 사회적 이점을 모색하는 실천적 연구이다. 영암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마한 역사가 문화사업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탐색했다.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지속성이라는 한국지역문화학회의 목표에 부합하며, 고고학적 성과를 지역 활성화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제 간 융합 연구의 모범을 제시했다.

□ 최■준 “가상화폐담론의 지속과 변화에서 대학생 투자의 의미 ”
- 청년 세대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인 가상화폐 투자 행위를 ’정보의 결핍’이나 ’무지’와 같은 단순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가상화폐 리터러시’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분석을 확장했다. 연구는 이 개념을 제안하여 청년 세대의 투자 행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로 학문적 기여를 가진다. 팬데믹 이후 심화된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하여, 그들의 행위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리터러시 형성을 고찰했다.

□ 우■준 “ ‘팬덤정치’의 양극화 ‘1찍’과 ‘2찍’의 의미를 중심으로”
-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팬덤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1찍’과 ’2찍’이라는 실제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의적절성이 매우 높다. 연구는 부정적 의미로 자주 언급되지만 실질적 연구 진전이 부족했던 이 담론의 의미를 분석하며, 한국 정치권 팬덤정치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공존의 모색’이라는 학회 주제에 맞춰, 첨예하게 분열된 사회 현상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탐구하여 공존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했다.

□ 이■우 “일본 지역 활성화 정책과 미치노에키의 발전과정 : 규슈 미치노에키를 중심으로”
- 일본의 지역 활성화 정책과 미치노에키(道の駅)의 발전 과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일본의 정책적 변화를 규명한 연구이다. 연구는 미치노에키가 단순한 자동차 휴게시설을 넘어 재해 거점 및 지역 활성화 허브 기능까지 요구받게 되면서, 이러한 기능 확장이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남을 밝혀냈다. 이는 정책 변화가 실제 지역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였다.

□ 안■빈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의 조화와 확장 : 전주 후백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포럼에서, 본 연구는 전주에 분포된 후백제 유산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후백제 유산을 전주의 역사성과 현대성을 연결하는 복합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주의 문화도시 비전 모색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실용성을 갖는다.

□ 박■림 “지역 축제의 전시된 시민성: 남원춘향제 대동 길놀이를 사례로”
- 남원춘향제 ’대동 길놀이’ 참여자의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전시된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연구는 과거 동원된 인력 중심이었던 길놀이가 오늘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변화가 시민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했다. 이는 지역 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체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공존의 미래를 모색하는 인류학적 논의에 축제의 실천적 의미를 더했다.

□ 서■임 “막걸리빚기 유산화와 집합기억의 구성”
-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막걸리빚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유산화’ 과정 전후로 막걸리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밝혔다. 특히 막걸리 접두사 ’막’이 ’거친’에서 ’지금’으로 재해석되는 현상과, 일제강점기 주류산업 재편 과정에서 형성된 양조장이 주요 전승 주체로 등장하는 양상을 파악했다. 이는 전승공동체 개념의 복잡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집합기억의 구성에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 조■진,이■안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Ancient East Asian Society: Focusing on the Baekje Tombs”
- 한성백제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백제 지역 출토 금동관을 위시한 위세품에 주목한 연구이다. 금동관의 출토 현황과 묘제, 공반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동관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중앙 왕권과 지방 세력 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표상하고 지방 지배에 실질적 기능을 한 위세품이었음을 논증했다. 출토 유적의 지리적 위치와 교통로상의 전략적 의미를 연계함으로써, 금동관 사여 행위가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가졌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백제 지방 지배 구조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 김■희 “재난을 유산화하기: ‘태안 기름유출 사건’의 콘텐츠화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억의 재편”
-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사건’으로 바라보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시뮬레이션 전시매체 분석을 통해 기억의 재편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연구는 게임 콘텐츠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사건에 관한 비공식적인 기억을 소거시키고 특정 기억을 ’공식 기억’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분석했다. ’공존의 모색’이라는 학회 주제에 맞춰, 유산화 공정과 디지털 콘텐츠가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의 이면을 드러내며 유산학 분야의 비판적 논의를 심화했다.

□ 강■환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지역민의 참여: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 폐산업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전주 팔복예술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지역민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공간의 형성과 운영 과정을 고찰하고, 기억 아카이빙, 예술교육 등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의 역할을 분석하며, 문화적 도시재생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 변화를 넘어 주민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주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하며 실천적 연구의 가치를 높였다.

□ 강■환 “Temporality of Nighttime Local Festivals: Focusing on Night of Jeonju and Heritage Story”
- 전주국가유산야행을 유산이 감각적으로 소비되는 이벤트로 재정의하고, ’관광의 시선’과 ’연출된 진정성’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유산 천년의 행진’에 빅터 터너의 ’리미노이드(Liminoid)’ 개념을 적용하여 야행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로 해석했다. 유산이 감각적 몰입을 위한 연출된 무대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야행이 도시 브랜딩 및 장소 판매의 장으로 기능하는 현대적 유산 활용 방식의 이면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 김■라 “기도 공간은 어떻게 전시되는가: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과 호남기독교박물관을 중심으로”
- 전주 기독교 박물관 두 곳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종교적 의미를 지닌 ’기도 공간’이 박물관이라는 전시 공간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구성되는지를 탐구했다. 이는 종교적 행위와 공간의 물질성 및 비물질성이 전시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인류학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인간적 의례의 비인간적 세계상’ 세션에서 발표되어, 종교인류학과 전시인류학이라는 학제 간 경계를 넘나들며 종교적 의미의 재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

□ 박■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지역공동체: 등재 전후 임실필봉농악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 임실필봉농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제도(유네스코)가 지역공동체 및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등재 전 과정보다 등재 후 과정에 주목하여, 제도가 문화유산의 의미와 전승 방식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탐색했다. 이는 유산 정책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김■수/이■후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 국제문화재기록보존위원회(CIPA)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본 연구는 GIS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전주와 완주 지역의 역사 유산을 지도화하고, 이를 교육 및 대중 참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 및 기록에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며, 문화유산의 3D 스캐닝 등 디지털 기록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위상이 높다.

□ 오■윤 “ ‘공동체 문화도시’ 되기: 완주군의 변형과 재배치”
- 국내 문화인류학 분야의 최고 권위 학회에서 발표된 본 연구는 전북 완주군의 ’공동체 문화도시’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의 공동체 경험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의되고, 정책적 기획에 따라 문화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시대적/정책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되는 실천의 장임을 논증하며, 문화인류학의 ’공동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시했다.

□ 이■후 “Critical Examination of Later Baekje Archaeology, Korea- Through Keyword Analysis”
- 동남아시아 고고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SEAA 10)에서 발표될 예정인 본 연구는 키워드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후기 백제 고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고고학 연구에 정량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를 넘어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에서 한국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우수상 수상 내역

가)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내역

□ 안■빈, 한국지역문화학회 우수포스터 수상
• 발표 주제: “전주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의 조화와 확장-전주 후백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 안수빈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도시 정체성이 확장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후백제와 조선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전주가 후백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선 왕조의 풍패(豊沛)

이미지와 결합하여 왕도로서의 위상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이 단일한 역사 이미지가 아닌, 중층적 역사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고 확장되는 동적 과정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참신성과 지역문화 해석의 깊이가 높이 평가되어, 한국지역문화학회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지역문화학회 우수 포스터 수상과 발표현장

나) 우수연구 수상 내역

□ 김■희, 학문후속세대 리서치드림 우수상 수상

• 발표 주제: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통해 본 집합기억의 구성과 서사적 재현”

- 박사과정의 김■희는 “태안지역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통해 본 집합기억의 구성과 서사적 재현”을 주제로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기념관의 전시 구성, 교육 프로그램, 기념행사 등을 분석하며,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집합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재현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사회와 기억문화의 관계를 인류학적으로 조명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니며, 연구결과는 소논문으로 발전되어 등재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자는 대학원생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학문후속세대 리서치드림’에 선정되어 연구의 연속성과 체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우, jbnu우수연구자 선정-총장상 수상

• 발표 주제: “일본 지역 활성화 정책과 미치노에키의 발전과정 : 규슈 미치노에키를 중심으로”

-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우는 일본 해외연구를 1년 동안 진행했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의 결과로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어 전북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다. 일본의 미치노에키 연구는 지역활성화나 지역거점, 지역관광의 융합의 사례로 한국보다 먼저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는 방식을 밝힘과 동시에 일본 내부에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적 내용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지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한일간 비교 정책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4)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역량강화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학술논문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논문

지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참여대학원생들은 연구주제를 설정한 후,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발표 능력과 학문적 소통 역량 향상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된 지원체계로 마련하여, 연구주제 선정 → 학술발표 → 논문 투고 및 게재로 이어지는 체계적 연구 성과 창출 구조를 구축

□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이 국내 연구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물리적·제도적 지원과 멘토링을 확대할 예정. 이를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학술무대에서의 경쟁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 특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5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김[redacted]희(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이 선정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전에도 김[redacted]정, 이[redacted]민 등 참여대학원생들이 동일 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연구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는 교육연구단의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가) 학위논문 작성 자격 기준 강화 및 연구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 학위논문 자격 요건 상향 조정
-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기존 규정(논문실적 200% 이상)보다 강화된 300% 이상 실적 기준을 의무화함
- 이 중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 200%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위논문 심사 기준의 엄정성을 강화함

□ 소논문 작성 및 논문 투고 활성화
- 내규(제6조 ③-1.)에 따라 모든 대학원생은 연 1회 이상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의무를 부여함
- 특히 박사과정생은 장학금 지원 개시 후 3학기 이내 KCI급 이상 논문 게재를 필수화하였으며, 미이행 시 차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박사과정생들의 논문 투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연구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연구성과 기준표에 투고실적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함. 이에 따라 해당 학기 말 투고 실적 우수자에게 연구성과금 지급을 시행함

나) 연구활동 지원 강화 실적

□ 국제협력 기반 해외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연구 추진
- 2024년 2학기 나가사키 지역 연구를 주제로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 총 5명의 참여 대학원생이 참가하였고, 각자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현장 조사 및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함. 연수 이후 나가사키 지역 연구자인 이[redacted] 교수(나가사키 종합과학대학)와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를 총서 발간으로 발전시킴
- 2025년 1학기 규슈 지역 연구를 주제로 해외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함. 총 4명의 참여 대학원생이 참가하였고, 규슈 지역의 문화 유산을 주제로 후쿠오카 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3개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대학원생들에게 국제적인 협력 연구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해외 연구 역량 및 공동 연구 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

□ 국내외 학술지 게재와 학술대회 지원
- 교육연구단에서는 국내외 학술지 게재 지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 및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학술대회 발표가 바탕이 되어 다음 학기 논문 투고 및 게제가 이루어짐. 2024년 2학기 학술대회 발표자 13명 중 3명이 2024년 2학기 논문 게재로 이어져 지원하였고, 영국에서 진행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논문으로 게재되어 2025년 1학기 1개의 해외논문 게재를 지원함
-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게재라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학회에 대한 정보를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전달하고, 석사와 박사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동 연구를 장려할 계획

□ 참여 대학원생 소그룹 스터디 활동 지원
- 본 교육연구단은 4~5명의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체 스터디 모임을 지원(인쇄비, 다과비, 식비 등)하고 있음. 매 학기 초 지원 그룹을 신청 받아 교육연구단의 계획서 평가를 거쳐 학술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임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4개의 소그룹을 지원함

□ 연구실적에 따른 우수 연구 성과 포상 및 장학금 지급
-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 100만원, 박사과정 160만원(수료생 130만원) 이상을 준수하여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규에 있는 ‘연구 성과급 지급 기준표’에 준하여 매학기 말에 성과급을 지급함
- 2024년 2학기 18명(박사5, 수료3, 석사10)에게 성과급 지급
- 2025년 1학기 19명(박사3, 수료4, 석사12)에게 성과급 지급
- 연구실적에 따라 장학금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 또한 지속적인 성과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연구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적 지원 구조를 구축함

□ 대학원생 연구 공간 확보 및 연구 환경 개선 추진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연구환경을 개선함
- 현재 고고학연구실, 문화인류학연구실, 고고문화인류학과 자료실, 세미나실 등 총 4곳의 공간을 대학원생 전용으로 운영, 고고학 연구실에는 12명, 인류학 연구실에는 16명이 개별 연구공간을 이용 중. 또한 공동활동이 가능한 세미나실과 자료실을 상시 개방하여 연구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아울러 향후 연구공간의 확대 및 환경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원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다) 비교과활동의 확대와 국제화 역량강화 실적

□ 전문가 연계 및 글로벌 현장 연구 강화
- 연구 네트워크 활용 및 국내외 학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학기에 2회 이상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
- 해외 학술 교류 및 국제 공동 연구와 관련 된 BK21 비교과 프로그램 적극 참여
- 나가사키 종합과학 대학, 가고시마 대학 국제학부, 후쿠오카 대학 등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 해외 연구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세미나 발표, 총서 발간, 논문 투고 등 학술 활동으로 연계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팔복예술공장 등 지역의 문화전문기관 답사를 통해 졸업 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 지역의 연구 현장을 방문하는 공동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연구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현장 전문가를 초청 강의로 초빙하여 생생한 연구 진행 과정을 체험

□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2024)
- 주　　제 :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 지방화(Local Knowledge and Localizing Future)”
- 일　　시 : 2024. 11. 8. ~ 2024. 11. 9.
- 공동개최 : 한국문화인류학회/동아시아인류학회(EAAA)/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
- 학술대회의 중요성: 이번 한국문화인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인류학회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학술적 연대를 강화하고,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 지방화’라는 핵심 주제를 학문적 디자인의 중심에 두었음. 이 국제학술대회는 총 40개 세션, 120편 이상의 발제라는 대규모 구성을 통해 주제의 심층적 논의를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단 소속 대학원생 6명이 직접 발제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계 석학들과 논의하는 기회가 됨. 이는 연구단이 추구하는 인재 양성의 실질적인 결실이며, 미래 학술 발전에 기여할 젊은 연구자들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임, 대회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미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거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적 지식의 복원과 재구축을 모색한다는 점으로 이는 ’지방적 지식’의 가치에 주목하여, 그 속에 내재된 공존, 배려, 관용의 지혜를 발굴하고 성찰하는 학문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2025)
- 주　　제 : “동아시아의 식민 디자인과 지방 심성”
- 일　　시 : 2025. 5. 30.
- 공동개최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고고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 학술대회의 중요성: 본 국제학술대회는 ‘식민 디자인’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식민 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학문적 및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의의를 두었음. 대회의 주요 논의는 「식민세계를 만드는 장치: 용수, 농장, 철도」, 「식민 통치와 개발, 지방‘들’의 생산」, 그리고 「끊어지며 이어지는 혼종성: 꿈, 애착 그리고 심성」이라는 세 가지 세션을 통해 이루어짐. 첫 세션에서는 식민 통치 시스템 구축의 물리적 기반이 된 인프라와 기술적 장치를 분석했으며, 두 번째 세션은 식민 지배 과정에서 특정 지역(지방)이 어떻게 통치 구조에 편입되고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마지막 세션에서는 식민 경험이 남긴 문화적·심리적 영향과 혼종적 정체성 및 심성 구조를 탐색함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가. 신진연구인력 근무 현황

□ 본 교육연구단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명의 신진연구인력이 근무하였음

이　름	재직기간	전　공	직　위	담당 및 연구 분야
양[redacted]영	2023.09 - 현재	문화인류학	박사후연구원	- 고고학, 문화인류학 대학원생 담당 - 문화유산, 관광이미지 활용 및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나.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내용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 안정적 학술 및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한 연구 공간 지원
•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성과급 지원 및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
• 원활한 연구 활동 및 위기극복 대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연구네트워크 제공
• 월 3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최대 4년 계약 보장
• 전임교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2)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논문게재 등 연구 활동비용 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투고를 적극 장려하고 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
• 장기해외연수 지원
- 신진연구인력에게 국제화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항공비, 숙박비, 여비 등 체류비와 조사비 지원
- 2024년 2학기에 양[redacted]영(일본 나가사키 지역 음식문화 비교 연구)에게 해외연수비용 지원한 바 있음
• 연구 성과급 지급
- 신진연구인력에게 연 1회 교육연구단 내부규정에 제시된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연구성과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성과급 지급
• 신진연구인력에게 매학기 3학점 이상 강의 보장
-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연구내용 환류를 위해 매학기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강의 배정

다. 신진연구인력 활동 실적

□ 교육연구단 핵심 아젠다 중심의 정기세미나 기획 및 진행
•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 증진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 학기 콜로키엄 구성 및 진행
• 국내외 전문가 및 석학초청 학술특강을 참여교수 등과 함께 기획하여 매 학기 개최

□ 교육과정의 선순환 구조구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동연구와 지도
•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이 공동으로 소그룹 스터디 MA(Museum Anthropology) 운영
• 해외공동연구 결과물로써 총서발간 및 기획
• 이론과 현장을 결합한 융합 학문,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교류, 소통확장

□ 학술대회 발표 실적

성 명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주관 기관	발표논문	발표자수
양[redacted]영	‘다중위기시대, 지역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12.06.-07	한국지역문화학회, 영암문화관광재단	매장유산의 보존과 활용: 동북아시아 3-7세기 왕릉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

양■영	‘다중위기시대, 지역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12.06.-07	한국지역문화학회, 영암문화관광재단	고고유적을 통한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의 고찰	공동
양■영	‘다중위기시대, 지역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12.06.-07	한국지역문화학회, 영암문화관광재단	고분 속 마한 역사와 문화사업의 융합: 영암 ‘마한문화공원’ 활용을 중심으로	공동
양■영	구술사와 시민의 참여로 회복하는 군산의 잃어버린 시간	2024.12.1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문화’ 이미지 생산과 기억의 재구성	단독
양■영	젠더와 로컬리티: 구술을 통한 교차적 관점	2025.07.04.	한국민족문화연구소·무형문화연구원	‘겹, 사이로’: 도계탄광기록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단독

□ 양■영 “구술사와 시민의 차여로 회복하는 군산의 잃어버린 시간”

• 발표의 우수성

“구술사와 시민의 참여로 회복하는 군산의 잃어버린 시간”은 군산이라는 도시가 지닌 근대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의 기억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산은 한국 근대사의 주요 전환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며, 이번 발표는 이러한 도시의 역사적 층위를 구술사 방법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특히 지역 시민의 참여를 통해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수집함으로써, 공적 역사 서술에서 누락된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문화’ 이미지의 생산과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였으며, 도시의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시민 정체성과 지역문화의 재창조로 확장시킨 점에서 발표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 양■영 “젠더와 로컬리티: 구술을 통한 교차적 관점”

• 발표의 우수성

“젠더와 로컬리티: 구술을 통한 교차적 관점”은 지역의 기억과 젠더 서사를 구술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교차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특히 “‘겹, 사이로’: 도계탄광기록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마지막 탄광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구술사 연구로, 산업 전환기에 놓인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 속에서 형성된 노동·가족·젠더의 기억을 세밀하게 포착하였다. 이를 통해 구술이 단순한 개인의 기억 기록을 넘어,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해석하는 유효한 방법론임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지역민의 서사가 지닌 복합적 의미와 기억의 층위를 드러내어 로컬리티의 재구성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발표의 우수성이 두드러진다.

□ 학술용역 및 학술 활동

용역명	장소	과제기간	주관 기관	내용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용역	전주시	2024.07-2024.09	전주특별자치도/(사)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전반적 성과와 운영 개선사항 및 향후 축제 추진 방안에 대한 제언
2024 완주00마을학교 기록화사업	완주군	2024.09-2024.12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학교를 구성하는 '00마을학교'의 주민들과 인터뷰, 아카이브 기록화 작업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용역	전주시	2025.07-2024.09	전주특별자치도/(사)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2025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전반적 성과와 운영 개선사항 및 향후 축제 추진 방안에 대한 제언

- 2024년 한국지역사회학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 지역사회 연구의 최신 동향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확대함
- 2024년도 BK21 Global Leaders Podium 지원 사업 계획수립, '학문 소통 플랫폼' 산학협력 특강 개최. 특강을 통해 산업계 전문가와 학계 연구자 간의 실질적 교류를 도모하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고함
- BK21 교육연구단(팀)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전문가 특강 및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중심 교육 강화와 학문-지역 연계 기반 조성에 기여함
- 일본 나가사키 해외연수 및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및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함
- 전주문화재단 미래문화축제 팔복 전시콘텐츠 용역 평가에 참여하여 AI 기반 디지털콘텐츠 기획 및 활용 역량 평가에 기여함

5. 산학협력전담인력 현황 및 실적

1) 논문실적

성명	논문제목	게재정보			저자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 학회명)	권(호)	발행일	
엄[redacted]양	공동체적 실천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해석과 전시 전략- '와쇼쿠(和食): 일본의 자연, 사람들의 지혜' 특별전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연구	45	2025.2	공저 2인

□ 엄[redacted]양, 『공동체적 실천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해석과 전시 전략- '와쇼쿠(和食): 일본의 자연, 사람들의 지혜' 특별전 사례를 중심으로 』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와쇼쿠(和食) 특별전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음식 문화를 무형유산 관점에서 전시로 재현하는 방식의 함의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와쇼쿠 특별전이 도쿄(국가적 서사)와 쓰루오카(지역적 실천)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했음을 명확히 규명한 것이 핵심이다. 도쿄 전시는 와쇼쿠를 과학적 서사와 자연 존중,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풀어내며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을 구축하였다. 반면, 쓰루오카 전시는 유네스코 식문화창조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활용하여 체험형 교육과 지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와쇼쿠가 특정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살아있는 유산'이

자 공동체적 실천의 본질임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무형유산이 박물관 전시라는 매개를 통해 국가적 담론과 지역적 실천을 연결하며 현대적 의미를 창출하는 다층적이고 정교한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형유산 연구 및 전시 기획 분야에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저서 실적

성명	출판정보				저자수
	서적명	ISBN 발간등록번호	출판일	출판사	
엄[redacted]양	문화로 읽는 나가사키 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979-11-94595-94-6	2025.8.29	신아출판사	공저 8인

□ 엄[redacted]양, 『문화로 읽는 나가사키 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 저서의 우수성

이 저서는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이 '인류세 시대의 생물문화다양성 연구'를 통해 지역 위기 극복 및 미래 구축을 목표로 진행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후속 결과물이다. 이전 가고시마 프로그램에 이어 2025년 1월 나가사키에서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연구단의 핵심 연구 주제(지방, 문화생태, 지속가능성 등)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연구단은 현장조사와 학술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천적 지역문화전문가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이후 도출된 연구 성과는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촉진했으며, 최종적으로 학술총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이론과 현장이 결합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 선도'라는 연구단 비전을 구현하는 우수한 학술적 성과이자, 지속 가능한 연구-교육 선순환 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3) 학술대회 발표 실적

성 명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주관 기관	발표논문	발표자수
엄[redacted]양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 지방화	2024.11.08.-09	한국문화인류학회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일본음식: '와쇼쿠(和食)' - '와쇼쿠특별전' 이 재구성한 의미	단독
엄[redacted]양	Shaping Futures: East Asia as Practice	2025.7. 14. ~ 16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A Study of Local Cuisine within Washoku Connected to Regional Identity and Community Values: The Case of Nagasaki Sippoku Cuisine	단독

□ 엄[redacted]양,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일본음식: '와쇼쿠(和食)' - '와쇼쿠특별전' 이 재구성한 의미』

• 발표의 우수성

본 발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와쇼쿠(和食)'를 홍보 수단이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진 '정밀하게 설계된 모듈'로 분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는 와쇼쿠가 국가 주도의 소수 집단에 의해 등재되었음에도 '국민이 공유하는 문화'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발생하는 모순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와쇼쿠특별전이 취한 전국 순회 전시회 형식과 지역별 역할 분담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였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지역 순회 형식이 오히려 와쇼쿠의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일본 대표성'의 모순을 우회하는 전략임을 간파하고, 이 모든 설계가 일본의 근본 사상인 '和(화)'의 조화, 수용, 절충 정신을 유산 계승의 형태로 재구성하려는 의도임을 밝혔다. 나아가, 와쇼쿠의 미래상 구역에서 절충요리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역시 '和' 사상을 통해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비소유,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전략임을 증명하여, 단순한 전시 분석을 넘어 문화유산화 과정에 내재된 사상적, 정치적 기획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 엄■양, 『A Study of Local Cuisine within Washoku Connected to Regional Identity and Community Values: The Case of Nagasaki Sippoku Cuisine』

• 발표의 우수성

본 발표는 음식 문화가 단순히 재료나 조리법이 아닌 지역의 사회상과 접대 문화가 결합된 '음식을 먹는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임을 나가사키의 싯포쿠요리(卓袱料理)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싯포쿠요리가 국제 무역 도시의 상인 계층 실용성을 담아내며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보여주는 과정을 밝히는 동시에, 유네스코 등재된 '와쇼쿠(和食)'라는 거대 담론이 겪는 '일반화' 비판을 향토요리라는 지역적 개념을 포괄함으로써 어떻게 보완하고 국가적 가치를 확장하려 하는지 그 역동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싯포쿠요리의 1인 상차림 적응과 향토 개념의 국가-지역 간 차이 분석이라는 구체적인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연구의 현실 적합성과 학술적 확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가.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성과

1) 외국대학과의 인적 교류 및 국제학술성과 확장

□ 일본 나가사키 종합과학대학과 공동 연구

• 일본 나가사키 종합과학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해외공동저서 발간

• 나가사키 지역 연구를 주제로 한 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연구 방법론을 경험하고, 연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특히, 역사적으로 해외 교류의 중심지인 나가사키는 다양한 문화 접변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제공. 이러한 공동연구는 나가사키학 연구소들과의 연결을 통해 해외 공동저서 발간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 마련

• 공동저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과 이론을 융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도출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 또한, 총서 작업에 참여한 나가사키 종합과학대학 연구자가 해당 총서를 현지 연구회 모임에 소개해 학술적 파급력을 확대. 이러한 성과는 기존의 1년 단위 선순환 프로그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연구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가능성 확대

• 본 연구단은 2024년 11월 동아시아인류학회 등과 "지방적 지식과 미래의 지방화" 대회를 공동 개최함. 120편 이상의 발제를 통해 인류학 지식 재구축을 모색했으며, 특히 대학원생 6명의 발제 참여

는 인재 양성의 실질적 결실로, 젊은 연구자들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와 교내 쌀삶문명연구소 협업 하에 자체 학술대회 조직. 2025년 5월, “동아시아의 식민 디자인과 지방 심성” 대회를 공동 개최. 식민 통치 인프라, 지방 개발 과정, 그리고 혼종적 심성 구조를 3개 세션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함. 이는 식민 연구 분야의 학술적 가치를 확장하고, 동아시아 사회 영향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제공
- 두 국제학술대회를 발판 삼아 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과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진행하고자 함. 동아시아 및 한국의 정치, 사회 변화와 그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분석·공유할 계획. 이는 연구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인류학의 선도적 역할수행 기대
- 인류세의 지방화를 핵심 목표로 두고 있는 본 교육연구단은 내부 성과와 담론을 지속적으로 확장·심화할 수 있는 국제적 교류의 장을 자율적으로 마련함. 연구단은 자체 국제학술대회를 기획·운영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발표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해외 학술지 투고로 연계하는 학문적 성장의 순환 구조를 구축

2) 우수 외국인 학생 배출

□ 본 교육연구단은 4차년도(2학기), 5차년도(1학기) 동안 우수 외국인 졸업생을 배출하였음

〈졸업생 배출〉

성명	참여기간	출신국가/출신대학	연구주제
후[redacted]중	2021.09 - 2023.08	중국/전북대학교	한국과 중국 와당 비교 연구
왕 [redacted]	2021.03.01.-2025.02	중국/서북사범대학교	한국과 중국의 고대 고고학 연구
에[redacted]코	2022.09 - 2024.08	헝가리/엘테대학교	헝가리 한국문화 전파 양상 연구

〈박사과정 수료 배출〉

성명	참여기간	출신국가/출신대학	연구주제
야마시타 [redacted]	2020.09 - 2023.02	일본/가고시마대학교	한국의 군사문화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나. 참여대학원생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한 계획

1)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공동연구 및 교류 추진

□ 해외 교육,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연구 교류확대

- 2026년도 해외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지로 계획 중인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박물관 및 전시 관련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연구단의 현장기반 연구 역량을 강화
- 또한 오키나와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추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장려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단의 국제 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

□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적 사고 증진

- 다양한 문화적·생태적 현장을 직접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해석하는 융합적 사고역량 강화
- 현장 연구, 세미나,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넘는 통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촉진

2)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

□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 및 세션 조직

- 2026년 미국인류학회(2025 Annual Meeting for the Association of American Anthropologists)에서 관련 주제를 논하는 세션을 주도적으로 조직할 예정
- AAS(Association for Asian Studie)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아시아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음. 매년 AAS Annual Conference(북미에서 개최)와 AAS-in-Asia Conference(아시아 각국에서 개최)를 주최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이 교류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 이에 2026년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AAS-in-Asia 2026 학술대회는 “아시아 중심: 연결 재구성, 미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아시아 지역을 연속성과 재창조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제국, 신앙, 무역, 창의성의 역사적 교차로인 ‘라호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교수진 및 대학원생이 공동 세션 또는 패널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
- 이를 위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및 영어 논문 작성 지도 강화
- 2026년 글로컬 ‘하기’(Glocal Doding)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참여대학원생과 해외연구자들의 교류를 활성화
- 2026년 지역의 4개 거점대학 및 해외 대학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정

□ 공동 저술 활동 장려: 나가사키 총서와 같이 타 국가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를 장려

- 2025년에 진행된『문화로 보는 나가사키』총서발간은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 저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국제적 학문 교류와 협력 연구의 지속적 기반을 마련
- 공동 연구와 저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연구 관점과 방법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

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1. 참여교수 연구역량

가.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자체평가 대상기간(2024.9.1.-2025.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21.9.1.~2024.8.31.) 실적	최근 1년간 (2024.9.1.~2025.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803,880	213,600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8,000	12,00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90,208	25,067	
참여교수 수	9	9	

□ 정부및 산업체 연구비 수주 내역(최근 1년) (단위: 천원)

연번	주관부처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기간 (YYYYMMDD)		형태	총연구비 (천원)	사업참여교수지분(%)	참여교수지분액 (천원)
						시작	종료				
1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6호분과 가야, 백제 및 신라	김[redacted]중	김[redacted]중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2.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만경강권역 청동기시대문화의 전개와 특징	김[redacted]옥	김[redacted]옥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3	완주군	연구용역(지자체)	완주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 기록화 용역	김[redacted]옥	김[redacted]옥	20240701	20250112	단독과제	18,600	100%	18,600
4	전북대	연구교수 연구비지원사업	만경강권역 마한 철기의 생산과 유통체계	김[redacted]옥	김[redacted]옥	20240901	2025831	단독과제	5,000	100%	5,000
5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아슐리안 주먹도끼(Acheulian Handaxe)의 시간 및 공간적 다양성과 내재된 일관성 연구	이[redacted]우	이[redacted]우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6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 지원사업	사람과 사람의 주먹도끼	이[redacted]우	이[redacted]우	20240501	20250430	단독과제	10,000	100%	10,000
7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 지원사업	일본 근대화의 토대가 된 지식 기반—출판과 지식의 유통, 학교 이전의 배움 공동체—	임[redacted]택	임[redacted]택	20250601	20260228	단독과제	7,500	100%	7,500
8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인문학연구지원사업	17세기 이후 전근대 조선과 일본의 출판과 사회사상 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근대국민국가의 토대에 관한 새로운 모색	임[redacted]택	임[redacted]택	20241001	20250831	단독과제	12,000	100%	12,000
9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연구용역(지자체)	전북학연구센터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 위탁	임[redacted]택	임[redacted]택	20240708	20241220	단독과제	5,000	100%	5,000
10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일본의 지역문화형성에 관한 역사인류학적 연구	임[redacted]택	임[redacted]택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11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화석자본의 구축	전[redacted]령	전[redacted]령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0,000	100%	10,000
12	전북대	국립대육성(지식선도 네트워크 운영비)	(학술융합) 디지털 방법론을 활용한 젠더 융복합 커리큘럼 연구	전[redacted]령	전[redacted]령	2024.11	2025.02	단독과제	2,500	100%	2,500
13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호남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조[redacted]연	조[redacted]연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14	농촌진흥청	연구용역사업	여성농업인학습단체 개선 방안 연구용역	진[redacted]숙	진[redacted]숙	20250604	20251001	단독과제	19,000	100%	19,000
15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공동체의 정서, 정서의 공동체: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사례	진[redacted]숙	진[redacted]숙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16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은유로서의 기반시설 : 생태 위기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지방적 모델 구축	이[redacted]묵	이[redacted]묵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17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새만금 생태학: '존재론'의 견지에서	박[redacted]진	박[redacted]진	20240301	2025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나. 연구업적물

1). 참여교수 연구 업적물의 우수성

가) KCI 논문게재

성명	논문제목	게재정보			저자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 학회명)	권(호)	발행일	
진▇숙	“미래의 농업엘리트 탄생 가능성 탐색: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20~30대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2(4)	2024.12.31	단독
진▇숙	“공동체와 감정: 풀무학교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58(1)	2025.3.31	단독
전▇령	“탈-정치의 세계로 이끄는 ‘푸바오’,북극곰 그리고 비인간 담론”	문화 과학	119	2024.9.1	단독
전▇령	“인간중심주의 비판을 넘어서: 포스트휴먼 다종 인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판사회학회	145	2025.2.19	단독
박▇진	“총체적 급부론 또는 ‘태고사회’의 발명: 『증여론』 독해”	비교문화연구	31(1)	2025.6.10	단독
조▇연	“한반도 고대 유리의 재활용 가능성 검토—혼합알칼리유리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025(2)	2025.9	단독

□ 진▇숙, “미래의 농업엘리트 탄생 가능성 탐색: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20-30대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한농대 출신 청년의 꿈과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농업인으로서의 상승 열망이 담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포착하고, 그들의 행보가 농업엘리트를 향한 여정에 가 닿을 수 있는지를 탐색한 것이다. 한농대 출신 20~30대 청년의 입학 및 학업, 그리고 영농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살펴본 후, 청년농업인이 표출한 꿈의 서사와 영농 경험이 미래의 농업엘리트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농업 엘리트 탄생의 가능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한 농업인, 농업 CEO로서의 상승 열망과 분투는 경제적 지위 획득과 접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4-H 등 한농대 출신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업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가시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주체인 한농대 출신 청년 농업인의 현 실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진▇숙, “공동체와 감정: 풀무학교 사례”

- 논문의 우수성

이 논문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심성의 한 양태인 ‘감정’을 살펴본 작업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학교로 잘 알려진 풀무학교를 사례로 공동체를 직조하는 원리로 ‘감정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았다. 공동성의 창출에 감정의 공유와 연결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동의 집합적 감정이나 유대

에 조응하지 못한 타자가 출현할 수도 있고, 이방의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 공동체 사유에 이방의 감정을 함께 포착해야만 한다. 본문 첫 장에서는 공동체의 감정을 다루었다. 풀무학교 구성원들이 타자와의 연결과 공감을 어떻게 경험하고, 공동 활동의 과정에서 기쁨, 슬픔, 감동 등의 집합적 감정이 어떻게 분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방의 감정을 살펴보았다. 풀무학교에는 낯선 타자와 이방의 감정이 가득차 있으며, 이방의 감정을 표출하고 환대하면서 열린 공동체를 조형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공동체에 관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전[redacted]령, “탈-정치의 세계로 이끄는 ‘푸바오’,북극곰 그리고 비인간 담론”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포스트휴먼·물질적 전환 논의의 핵심인 탈인간중심주의와 탈비판의 문제의식을 포스트휴먼·다종 인류학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성을 인간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분석적 평등주의’가 에스노그래피에 적용될 때 드러나는 이론적 한계와 방법론적 충돌을 분석하며, 이러한 시도가 인간 사회의 상징적·문화적 차원과 권력·정치의 문제를 배제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또한 안나 칭의 『세계 끝의 버섯』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포스트휴먼 담론이 환경파국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관계보다 감응적 관계성과 개별적 윤리로 관심을 이동시키는 탈비판적 경향을 보여줌을 밝혔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이론과 인류학적 실천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비판의 윤리와 정치적 실천의 복원 가능성을 제기한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크다

□ 전[redacted]령, “인간중심주의 비판을 넘어서: 포스트휴먼 다종 인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논문의 우수성

이 논문은 최근 한국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론의 물질적/존재론적/포스트휴먼 전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논문은 그 움직임이 포스트휴먼 다종 인류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바에 주목하고, 그 중 포스트휴머니즘의 분석적 평등주의와 탈비판의 기조가 최근 인류학 논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의 분석적, 정치적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기후 위기 시대 더욱 주목을 받아온 포스트휴먼적 사고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관련 주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다.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유물론이 국내에서는 새로운 학술적 트렌드와 같이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판적 개입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박[redacted]진, “총체적 급부론 또는 ‘태고사회’의 발명 : 『증여론』 독해”

- 논문의 우수성

이 논문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태고사회’라는 인류학적 구성물의 발명 과정으로 읽어내며, 인류학과 근대성 비판을 잇는 독창적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총체적 급부론’의 구조를 고고학적·사회학적·도덕론적 층위로 분석함으로써, 인류세 시대의 사회 구성과 도덕적 기획의 문제를 재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하우(hau) 개념의 의미 변환을 통해 존재론적 관계가 법적 강제의 형식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과 제도의 상호형성 구조를 드러낸다. 이는 인류세적 위기의 원인인 근대적 이분법(자연/문화, 사실/가치 등)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생물문화다양성의 인류학적·철학적 기반을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 조[redacted]연, “한반도 고대 유리의 재활용 가능성 검토—혼합알칼리유리를 중심으로”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출토된 혼합알칼리유리(Mixed Alkali Glass)의 화학조성과 출토의

고고학적 맥락을 분석하여 이것이 재활용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규명하고자 했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혼합알칼리유리가 단순한 '편년적 과도기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공정을 통해 형성된 기술사적 산물'임을 새롭게 밝혀 냈다. 또한 이 유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삼국시대 각국가 간 유리 생산기술 및 유통 방식의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나) 저서 출판

성명	출판정보				저자수
	서적명	ISBN 발간등록번호	출판일	출판사	
임■택	『나상설의 서천 마서일기 2』	9791155223826	2024.12.31	흐름출판사	공저 7명
임■택	『문화로 읽는 나가사키 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979-11-94595-94 -6	2025.8.29	신아출판사	공저 8명
진■숙	『나상설의 서천 마서일기 3』	9791155224007	2025.4.25	흐름출판사	공저 6명
진■숙	『나상설의 서천 마서일기 4』	9791155224045	2025.5.30	흐름출판사	공저 6명
진■숙	『나상설의 서천 마서일기 5』	9791155224069	2025.7.30	흐름출판사	공저 6명
진■숙	『나상설의 서천 마서일기 6』	9791155224076	2025.7.30	흐름출판사	공저 6명
이■우	『피줄국가 북한: 구석기・인류・인종』	9791130318950	2024.9	박영사	1명
김■중	『백제 고분 연구의 쟁점과 향후과제(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25)』	9791171773176	2024.10	한성백제박물관	11명
김■중	『전북지역 마한・백제의 고고학』	9788963476070	2024.9.5	진인진	1명

□ 임■택, 『나상설의 서천 마서일기 2』

- 저서의 우수성

이 저서는 나상설이 1966년 4월 12일부터 1968년 3월 4일까지의 일기를 번역한 것이다. 나상설은 충남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00번지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생활하다 세상을 떠난 인물로, 나상설의 일기는 한국 농업의 쇠퇴 과정과 농민층의 고난한 삶의 역경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른바 중소지주층이 어떻게 해체되어가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나상설의 일기는 농업의 쇠퇴와 지주층의 투자 실패로 농지가 도시의 산업자본으로 흡수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기록은 전체 사회 또는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변동과 지역사회 및 공동체 수준의 변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서일기는 지역사 및 생활상 연구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임■택, 『문화로 읽는 나가사키 기억, 음식, 연결의 지형』

- 저서의 우수성

학술적 성과물로서 본 저서는 교육연구단이 수행한 국제협력형 해외교육프로그램으로 2025년 1월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서 실시된 현장 연구를 토대로 연구, 조사된 성과물이다. 본 저서의 연구들은 '인

류세 시대의 지역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생태, 지역위기 대응, 지속가능성, 문화자원 활용 등 교육연구단의 핵심 주제를 융합적으로 탐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연구자들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문화자원과 지역사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복합적 생태와 역사적 맥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해외 논문 게재 등으로 확산되었고, 지역문화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본 총서의 발간은 이론과 현장을 통합한 실천적 연구 모델을 제시한 결과물로서, BK21 교육연구단의 “현장 기반 융합연구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학술성과이자 교수진의 국제협력 연구 역량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 진■숙, 『나상설의 서천 마서일기 3-6』
- 저서의 우수성

본 저서는 나상설이 1968년 3월 5일부터 1980년 6월 30일까지의 일기를 번역한 것으로 총 6권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에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생활하다 떠난 나상설은 1963년부터 1980년까지 일기를 써 왔으며, 마서면에서 손꼽히는 지주 집안의 자제로 상당한 토지를 물려받은 중소지주였다. 그의 일기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농업의 쇠퇴, 농민층의 고단한 삶의 역정, 중소지주층의 해체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특히 1960-70년대 한국 농촌사회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일기연구는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마지막 6권에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한국사회의 농촌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귀중한 자료들의 수록되어 있다. 한 개인의 기록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상과 구조적 변화를 세밀하게 조명함으로써, 지역연구가 거시적 역사서술에서 포착하기 힘든 지역 농민사회의 구체적인 삶과 감정, 그리고 경제적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 김■중, 『전북지역 마한·백제의 고고학』
- 저서의 우수성

『전북지역 마한·백제의 고고학』은 전라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고대문화의 전개 양상을 고고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명한 학술 연구서로, 조선문화유산연구원 학술총서 제2권으로 발간되었다. 본 저서는 총 11편의 논문을 4개 주제로 구분하여 구성되었으며, 저자는 오랜 현장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한·백제 문화의 전개를 전북지역의 독자적 특성과 연관 지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마한·백제 고고학 연구가 가지던 범위를 확장하며, 지역 고대문화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전북지역의 고대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지역사회가 고유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로 평가된다.

□ 김■중, 『백제 고분 연구의 쟁점과 향후과제(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25)』
- 저서의 우수성

『백제 고분 연구의 쟁점과 향후과제』는 백제 고분 연구가 직면한 핵심 논의들을 집대성한 학술서이다. 본서는 적석총(돌무지무덤)의 출현 배경과 계보, 한성기 석실분(돌방무덤)의 왕릉 채용 여부 등 백제 고분 유형별 기원과 왕릉으로서의 위상에 관한 쟁점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서울 석촌동 고분군을 비롯한 주요 고분 자료의 해석 문제와 한성기부터 사비기까지 고분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백제 왕도 복원 작업과 연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고분 자료의 체계적 집성과 해석, 왕릉 정체성 및 계보 연구 강화 등 백제 고분 연구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백제 고분 연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미래 연구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백제학 연구의 필독서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 이■우, 『피줄국가 북한: 구석기・인류・인종』

- 저서의 우수성

『피줄국가 북한: 구석기・인류・인종』은 비북한인의 시각에서 북한의 독특한 학문 내재화 과정을 분석하는 학술서이다. 이 책은 북한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독자적인 정치・사회 체제 속에서 구석기, 인류, 인종과 같은 보편적인 학문 주제가 어떻게 북한만의 방식으로 규정되고 유지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사회적 개입이자 북한 연구의 열쇠는 '피줄(이어짐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라는 개념이다. 저자는 학문적 주제(구석기, 인류, 인종)가 북한의 독특한 정치・사회적 맥락, 즉 '피줄국가'라는 외피와 만나면서 어떤 전개를 보이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 주제들이 남한을 비롯한 비북한권과 달리 독특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 사이에 형성된 사고의 담을 학문적 영역에서 가늠하게 한다. 이 책은 북한의 선사(先史) 연구를 단순한 고고학적 지식이 아닌, 북한 체제의 특이성과 내재화된 학문 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는 데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성 명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주관 기관	발표논문	발표자 수
진■숙	다중 위기 시대, 지역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환	2024.12.6	한국지역문화학회	젠더거버넌스 실천을 통한 지역 성평등 문화예술정책 효과	단독
진■숙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2025.10.25.~10.26	한국지역사회학회	농업엘리트 탄생의 (불)가능성?: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20-30대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2인 공동
이■묵	무형유산과 로컬리티	2025.4.19	국립민속박물관	무형유산의 양도 불가능성: 인도네시아 바틱 보존에서 교육, 네트워크, 공동체의 혼종	단독
이■묵	공존의 모색 - 인류학이 모색하는 공존의 미래	2025.5.23	전남대학교	가장자리(Limbo)의 살아있는 유산: 전주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단독
임■택	무형유산과 로컬리티	2025.4.19	국립민속박물관	무형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광: 일본 기후현 나가리강(長良川) 유역의 사례 분석	단독
전■령	The 12th Korean Screen Culture Conference (KSCC)	2025.6.30.~7.1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The 'Fixers' of South Korean Talk Television	4명
조■연	30th CIPA Symposium "Heritage Conservation from Bits: From Digital Documentation to Data-driven Heritage Conservation	2025.8 25~29	CIPA Heritage Documentation, ISPRS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3명

조■연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2025.8. 19~22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Critical Examination of Later Baekje Archaeology, Korea - Through Keyword Analysis	2명
김■중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2025.8. 19~22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Ancient East Asian Society: Focusing on the Baekje Tombs	3명

□ 진■숙, “젠더거버넌스 실천을 통한 지역 성평등 문화예술정책 효과”

- 발표의 우수성

2018미투 이후 전북권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이하 ‘전성넷’)을 주축으로 성평등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동력은 ‘젠더거버넌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발표문은 전성넷을 사례로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톺아보는 연구이다. 전성넷을 젠더거버넌스의 사례로 보고, 전성넷 작동의 성과, 의미, 한계점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필자가 전성넷에 참여하면서 듣고 본 참여관찰 자료와 내부 문서이며, 몇몇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이후 성평등 정책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문화재단’ 내 어떻게 안착되고, 반대로 또 어떻게 경합하는지를 살펴 본 유의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 진■숙, “농업엘리트 탄생의 (불)가능성?: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20-30대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발표의 우수성

본 발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경험을 통해 ‘농업 엘리트’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청년들은 농업을 낙후된 산업이 아닌 기술과 경영을 통해 성장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농대의 실습 중심 교육은 이들에게 전문성과 자신감을 부여하지만, 졸업 후 현실에서는 자본·토지·지역사회 진입장벽에 부딪힌다. 이러한 괴리 속에서 ‘농업 엘리트’라는 명칭은 자부심과 동시에 불안정한 지위를 상징하게 된다. 본 연구는 농업을 사회적 지위 상승의 통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청년농정책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농업사회학과 청년연구의 교차지점을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의 계급화와 세대 전환 문제를 통찰력 있게 제시하여 높은 학문적·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농업문화의 가능성과 그 현실적 제약을 균형 있게 드러낸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 이■묵, “무형유산의 양도 불가능성: 인도네시아 바틱 보존에서 교육, 네트워크, 공동체의 혼종”

- 발표의 우수성

본 발표는 인도네시아 바틱 보존에서 교육, 네트워크, 공동체의 혼종“은 무형유산의 본질적 특성과 전승 양상을 인류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와이너(Weiner 1985)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후에도 본래의 소유자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님에 주목한다. 무형유산은 세 가지 재화 교환 패턴 중 부분적 양도(불)가능성 범주에 해당한다. 즉 본래 소유자로부터 이동하고 전승되지만, 과거나 전통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대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동성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연결을 유지하는 특성이 바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무형유산의 보존 및 보호는 단순히 유지시키는 것(keeping)이 아니라, ’주면서 유지되는’ (keeping while giving) 것이라는 논리가 제시된다. 무형유산이 현재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에 없겠지만, 과거와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유산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표자는 이 개념을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호 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동하고 변형되며 연결하는’ 이라는 개념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무형유산의 소유

는 법적 소유(possession)가 아니라 속함 (belonging)이며 공동체 전체에 속한다. 본 발표는.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이라는 실천적 논의에 인류학적 이론 (와이너의 양도 불가능성)을 핵심 분석 틀로 가져와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이동하고 변형되며 연결하는 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무형유산이 어떻게 여전히 그 기원과 단절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분석적 틀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무형유산의 본질적 소유를 법적 소유가 아닌 공동체에의 속함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무형유산의 변형과 활용을 포용하면서도 그 전통적 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이■묵, “가장자리(Limbo)의 살아있는 유산: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 발표의 우수성

이경묵의 발표, “가장자리(Limbo)의 살아있는 유산: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이라는 개념적 공간을 탐구하며, 이 상징이 과거-현재-미래를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처소라고 주장하였다. 발표는 살아있는 유산의 공간을 이승과 저승 사이의 제3의 처소인 림보(Limbo, 고성소)와 유비적으로 연결하는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림보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의 변두리로서, 구원받지도 저주받지도 않은 상태에 머무는 존재들의 공간이다. 살아있는 유산은 모순적인 목표를 지닌다.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되어야 하며, 고정된 과거로도 불확정적인 미래로도 가지 못하고, ’유산이되 유산이 아닌 상태’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화와 자본주의화의 위기 속에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으나 ’원죄’를 지닌 상태로,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보호의 책임을 요청한다. 발표문은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사례로 들어, 이들이 과거로부터 왔고 현재 전승되지만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림보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은 관광지로서의 성공과 과도한 상업화 때문에 ’림보’의 자리를 잃었고, 전라감영은 사라진 과거의 건축물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정당성이 강조되는 한편 전승할 공동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림보에 포함되기 어렵다. 본 발표는 림보 개념의 독창적인 적용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우수성을 지닌다. 즉 신학적/정치철학적 개념인 림보*를 무형문화유산이 처한 위기와 역설적 보호의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 은유이자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살아있는 유산’의 난해하고 부조리한 특성(’변화하면서 변치 않는 상태’)을 효과적으로 조명하였다.

□ 임■택, “무형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광: 일본 기후현 나가리강(長良川) 유역의 사례 분석”

- 발표의 우수성

2025년 4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무형유산과 로컬리티」학술대회에서 임경택은 일본 기후현 나가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의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본 발표는 전통어업, 지역축제 등 지역 고유의 무형유산이 관광자원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특히 무형유산의 보존이 단순한 전통의 계승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현대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이 연구는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무형유산을 매개로 한 지역재생 모델의 가능성을 제안한 점에서 실천적·국제 비교적 연구로 평가된다

□ 전■령, “개해결사 강형욱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

- 발표의 우수성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개최된 The 12th Korean Screen Culture Conference(KSCC)에서 전의령은, The ‘Fixers’ of South Korean Talk Television 세션에서 4명의 해외 연구자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본 발표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반려동물 콘텐츠를 통해 분석한 점에서 높은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한국의

영화, 텔레비전, 웹툰,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가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고, 전통적 관계 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성(sociability)을 구성하는 방식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외로움, 성 불평등, 경쟁적 사회 구조 등의 문제를 미디어 속 ‘대체적 연대’의 형성 과정과 연결하여 해석함으로써, 글로벌 한국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의령의 발표는 한국 스크린 문화 속 사회성의 재구성을 국제 학문 담론으로 발전시킨 우수한 연구로 주목된다.

□ 조■연,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 발표의 우수성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500여명 이상의 고고학자 및 유관분야 연구자들이 참가하며 30여개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500여개의 논문을 4박 5일 동안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조대연 교수는 8월 27일 오후의 TS 21 Session인 “patial Documentation and Analysis Using GIS”에 참가하여 “Mapping Historic Heritage in Jeonju and Wanju, South Korea: A GIS-Based Approach for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전주와 완주 지역의 지정문화재 135건을 대상으로 QGIS 공간 분석을 실시하여 등록 문화유산의 시대별·기능별 분포의 특성과 중심성을 시각화하였다. 나아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시민 참여형 문화관광을 위한 ‘도심 삼각 루트’와 ‘광역 루트’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공개 데이터와 오픈소스 도구만으로도 문화유산 활용 모델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김■중,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Ancient East Asian Society: Focusing on the Baekje Tombs”

- 발표의 우수성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가 주관하고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김낙중은 한성백제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비롯한 위세품에 주목하여, 이들의 출토 양상, 묘제, 공반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금동관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중앙 왕권과 지방 세력 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상징하며, 지방 지배 체계 속에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 위세품이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출토 유적의 지리적 분포와 교통로상의 전략적 위치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금동관의 사여 행위가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내포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백제의 지방 지배 구조를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권력 관계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 된다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연번	실적명	참여 교수명	실적 해당 분야	실적 요약
1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학습단체 개선방안 연구	진[redacted]숙	미래/글로벌 대응 정책 기여 지역 특화	본 사업은 진[redacted]숙 교수가 추진한 연구 과제로 국내 대표적인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생활개선회〉를 사례로 생활개선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연구임. 여성농업인단체의 로드맵과 세부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변화하는 농촌·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천적 방안을 모색함
2	남원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선정 공모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진[redacted]숙	미래/글로벌 대응 정책 기여 지역 특화	본 사업은 진[redacted]숙 교수가 추진한 연구 과제로 남원시 문화유산과 현재 실태를 분석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임. 학술행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네스코 창의도시 핵심방향 설정, 창의도시 선정을 위한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수립. 본 연구를 통해 남원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적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함

3.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현황

가.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참여교수 전[redacted]령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열린 12th Korean Screen Culture Conference (KSCC) 참가
- 라운드테이블(The ‘Fixers’ of South Korean Talk Televisio)에 초청되어 “개해결사 강[redacted]욱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제로 발표
-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의 성장 속에서 등장한 ‘전문지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며, 강[redacted]욱으로 대표되는 반려문화와 산업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고찰

• 미국 문화인류학회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의 온라인 플랫폼 Fieldsights에 인터뷰 게재
- Cultural Anthropology 게재 논문 “Grinding the Souls: Politics of Interspecies Pity and the Labor of Care in a South Korean Animal Shelter” 관련
- Hae-[redacted] Kim(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과의 인터뷰 “Grinding the Soul: An Interview with EuyRyung Jun”을 통해 연구의 주요 논점 및 동물 돌봄노동의 윤리적·정치적 함의 확산

□ 참여교수 조[redacted]연

•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개최한 SEAA(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학술대회 참가
- Session 12 “Critical Examination of Korean Archaeology: New Voices, Alternative Perspectives”에서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ater Baekje’ Discourse in Korean Archaeology” 주제로 발표
- 1948~2024년 후백제 관련 연구 155편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과 구조적 한계를 제시하

고, 향후 질적 심화 방향을 제안

• 30th International Symposium CIPA 2025 참가

- ICOMOS와 ISPRS가 공동 주관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 분야의 세계적 학술대회 발표
- 문화유산의 3D 기록 및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넘어, 데이터 기반 보존과 참여형 디지털 실천의 중요성을 논의

□ 참여교수 김■중

•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참가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주관)

-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Ancient East Asian Society: Focusing on the Baekje Tombs" 주제로 발표
- 백제 고분을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중앙-지방 관계를 분석하며, 한국 고대사 연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공동연구 기반 강화

□ 참여교수들의 국제 학술활동은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한국 고고학과 인류학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국제 무대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킨 성과로 평가. 전■령 교수는 한국 스크린문화와 반려동물 담론을 매개로 동시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전환을 국제적 담론으로 발전, 조■연 교수는 후백제 고고학 연구의 메타분석과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 논의를 통해 한국 고고학의 학문적 깊이와 기술적 확장성을 강화. 김■중 교수는 백제 고분 연구를 통해 한국 고대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아시아 고고학 내 학문 네트워크를 확장. 이와 같은 활동들은 국제 학술무대에서의 발표, 협력, 출판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국제 연구역량과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대표적 성과 현황

나.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팀)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임■택	李 桓 (이 현)	일본/나가사키종합대학원	일본 나가사키 공동연구에 대한 총서 발간	979-11-94595-94-6

다.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상호 교류 현황 및 실적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12th Korean Screen Culture Conference (KSCC)' 컨퍼런스

• 기　　간 : 2025. 06. 30 - 2025. 07. 01
• 참여교수 : 전■령
• 참여국가 : 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호주
• 내　　용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개최된 '12th Korean Screen Culture Conference (KSCC)'의 라운드테이블 "The 'Fixers' of South Korean Talk Television"에 초청되어 4명의 해외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개해결사 강■욱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동물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많

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의 사회적 삶, 그리고 인간-반려동물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국 스크린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구자 간의 학술 교류의 장으로, 영국・네덜란드・미국 등지의 연구자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redacted]령 교수는 동시대 한국 미디어와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논의를 통해 한국 인류학과 미디어연구의 국제적 가시성과 위상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 논의와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공동연구 및 비교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 담론을 글로벌 문화연구 맥락 속에 재위치시키는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국제 학술활동은 교육연구단의 인류학・문화연구 분야 국제협력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 영국 에버딘 대학교 'SEAA(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학술대회

- 기　　간 : 2025. 08. 19 - 2025. 08. 22
- 참여교수 : 조[redacted]연
- 참여국가 : 대한민국, 영국,
- 내　　용 :영국 애버딘대학교에서 개최된 SEAA(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Session 12 'Critical Examination of Korean Archaeology: New Voices, Alternative Perspectives'에서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ater Baekje' Discourse in Korean Archaeology"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는 1948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후백제 관련 연구 155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동향과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14년 이후 정책 변화와 발굴 성과를 계기로 후백제 연구가 기존의 역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고고학적 해석, 공간 분석, 불교유적 연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후백제 연구가 소수 연구자에게 집중된 구조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정책 주도의 양적 확대를 넘어 학문 주도의 질적 심화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 고고학의 연구 방향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고고학 내에서 한국 고고학의 학문적 위상과 연구 담론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발표를 통해 영국 에버딘대학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고고학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한국 고고학 연구의 성과를 국제 학계에 공유함으로써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영국 에버딘 대학교 'SEAA(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학술대회

- 기　　간 : 2025. 08. 19 - 2025. 08. 22
- 참여교수 : 김[redacted]중
- 참여국가 : 대한민국, 영국,
- 내　　용 :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열린 'Archaeology of East Asia and Adjacent Regions'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Ancient East Asian Society: Focusing on the Baekje Tomb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연구자는 백제 고분을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중앙과 지방 관계를 비교・분석하며, 권력 구조와 지역 지배 양상의 특징을 고고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사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백제사 연구를 동아시아 고고학의 넓은 맥락 속에서 조명하는 학문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및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었으며, 향후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일본 나가사키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와 해외 공동연구

- 기　　간 : 2025. 01. 15 - 2025. 01. 21
- 참여교수 : 임[redacted]택
- 참여국가 : 대한민국, 일본
- 내　　용 : 교육연구단이 수행한 국제협력형 해외교육프로그램으로, 2025년 1월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서 현장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류세 시대의 지역성' 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생태, 지역위기 대응, 지속가능성, 문화자원 활용 등 교육연구단의 핵심 주제를 나가사키에서 융합적으로 탐구하였다.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문화자원과 지역사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복합적 생태와 역사적 맥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해외 논문 게재 등으로 확산되어 지역문화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 나가사키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와의 해외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된 국제협력형 연구 성과물로,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기반 융합연구의 국제적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교수진의 국제공동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2) 향후 추진 계획

□ 해외 협력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정례화

-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정기 세미나 및 공동조사 프로그램 운영
- 해외 파트너대학 교수진이 참여하는 공동강의·현장세미나 체계화

□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성과 확산 및 학술 플랫폼 구축

-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정기 세미나 및 공동조사 프로그램 운영
- 해외 협력대학과 상호 MOU 갱신 및 신규 체결을 통한 국제연구 허브기능 강화. 2026년 일본 나카사키 대학교, 오키나와 대학교 등 국제학문 교류 협력 체결 예정
- 대학원생의 현장기반 국제연구 역량 및 글로벌 학문위상 제고와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생태계 구축

Ⅳ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교육연구단명	인류세 시대, 생물문화다양성 연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 교육연구단
교육연구단장명	임[redacted]택

연번	구분	언론사명/수상기관 등	보도일자/수상일자 등	제목/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200자이내)			
1	인터넷 뉴스	MTN뉴스	2025.06.26	안[redacted]빈 전북대 석사과정생, 후백제 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626135648462 84
		'2025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 문화로 미래도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전주에서 열렸으며,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해 한국지역문화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대규모 학술행사에서 우리 교육단 석사과정생 안수빈이 '우수논문상'을 수상.			
2	인터넷 뉴스	E동아	2025.06.26	안[redacted]빈 전북대 석사과정생, 후백제 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78
		'2025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 문화로 미래도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전주에서 열렸으며,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해 한국지역문화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대규모 학술행사에서 우리 교육단 석사과정생 안수빈이 '우수논문상'을 수상.			
3	인터넷 뉴스	전북중앙	2025.06.26	전북대 안[redacted]빈, 후백제 연구 '우수논문상' 받아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947
		'2025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 문화로 미래도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전주에서 열렸으며,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해 한국지역문화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대규모 학술행사에서 우리 교육단 석사과정생 안수빈이 '우수논문상'을 수상.			
4	인터넷 뉴스	전북일보	2025.06.26	전북대 안[redacted]빈 석사과정생, 후백제 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139
		'2025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 문화로 미래도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전주에서 열렸으며,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해 한국지역문화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대규모 학술행사에서 우리 교육단 석사과정생 안수빈이 '우수논문상'을 수상.			

5	인터넷 뉴스	한국강사신문	2025.05.29	전북대학교, 연구력 빛낼 대학원생 연구자 20명 포상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140
		교육부의 4단계 BK21 FOUR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전일제 재학생 및 박사수료생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인 20명을 선발해 총장 표창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총 6천만 원(1인당 300만 원)을 지원. 우리 연구단 이정우 박사과정생이 수상함.			
6	인터넷 뉴스	뉴시스	2025.05.27	전북대 대학원 우수 연구자 20명 총장상, 6000만원 포상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7_0003191355
		교육부의 4단계 BK21 FOUR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전일제 재학생 및 박사수료생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인 20명을 선발해 총장 표창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총 6천만 원(1인당 300만 원)을 지원. 우리 연구단 이정우 박사과정생이 수상함.			
7	인터넷 뉴스	E동아	2025.05.27	전북대, 연구력 빛낼 대학원생 연구자 20명 포상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29
		교육부의 4단계 BK21 FOUR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전일제 재학생 및 박사수료생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인 20명을 선발해 총장 표창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총 6천만 원(1인당 300만 원)을 지원. 우리 연구단 이[redacted]우 박사과정생이 수상함.			
8	인터넷 뉴스	비욘드포스트	2025.05.27	전북대, ‘2025 JBNU-G 우수연구자 포상’ 수여… 글로벌 연구 인재 격려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527093907472 4d2326fc69c_30
		교육부의 4단계 BK21 FOUR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전일제 재학생 및 박사수료생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인 20명을 선발해 총장 표창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총 6천만 원(1인당 300만 원)을 지원. 우리 연구단 이[redacted]우 박사과정생이 수상함.			
9	인터넷 뉴스	한국강사신문	2024.12.26	전북대학교, 첫 시행 ‘찾아가는 전북학’ 교과목, 지역문화 재발견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243
		연구책임자 임[redacted]택교수는 전북의 사회·문화적 자산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인재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음.			